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자식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우리 크리스천의 생명 축복의 열매인 어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쁘게 사귄 수 있도록 방학 동안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시키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87호 2012년 6월 9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휴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과정

크리스천패러닝, 크리스천의 휴가 의미와 창조적 대안 소개

앞 닦아 자녀들이 방학을 하고나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누구나 휴가를 생각하게 된다. 긴장과 스트레스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휴가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레크리에이션이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휴식 개념은 항상 일하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생활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한 여행에서 우리

는 쉼과 안식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십계명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출20:9)고 말씀하시면서 일한 뒤에 비로소 제 칠일인 안식일이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한 후에 휴가를 즐겨야 할 줄로 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직장과 일터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일하고 맘 흘러 노동한 후에 휴가를 즐겨야 한다.

너도나도 떠나는 휴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할지, 휴가를 떠나기에 앞서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휴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휴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휴가를 설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여전히 휴가는 휴가일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을 오히려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휴가의 의미를 단지 노는 개념을 생각함으로써 생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면 적어도 휴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설계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휴가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휴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성경적인 휴가의 개념을 먼저 확인하고, 그러한 휴가를 보낼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쉽다 하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휴가는 단



사진은 플로리다 올랜도에있는 '홀리랜드'

지 노는 것이거나,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휴가 그 자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며, 휴가 동안에도 하나님께 하라하신 신분과 위치를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고,

그 뜻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잠시 하나님도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을 느끼겠다는 것으로서의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휴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

이다. 그러므로 휴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휴가가 잠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휴가는 곧 방종이 될 것이다. 오히려 휴가를 통해서 분주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실의 바쁜 생활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가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하며 밀접한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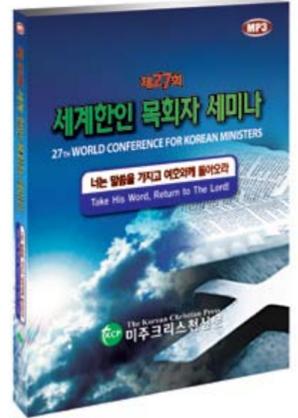
휴가는 쉼을 통해서 영육간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휴가는 쉼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쉼의 개념이 단지 '노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적인 것이든 동적인 것이든 어느 하나를 강조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성향과 관심과 환경이 다를 것이기에 획일적인 답은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됐든 자신의 관심과 능력,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쉼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헤아리며,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개발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자신이 나눌 수 있는 기쁨으로 발전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쉼은 재충전 재개발 혹은 자기 개발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 넓게 체험하는 기회이다. 즉 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며 그것을 나누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가가 아니라면 휴가는 단지 '노는 것' 이상 다른 것이 아니다. 실제로 휴가는 재생산을 위한 충전과 함께 자신이 사는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과 기회이기 때문에 노는 것이 곧 휴가의 개념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휴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 금란교회에서 개최한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9편 전체가 2장의 CD(MP3)로 나왔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5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교회부흥과 땅끝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6강의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의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총 소요시간 24시간. 2개의 CD로 묶어 가격은 20달러.

강사는 김홍도, 소강석, 권태진, 황의영, 천성덕, 김기원, 조일래, 송용길, 이영섭, 이정현, 김승욱, 홍민기, 조일구, 김규동, 송규식 목사와 분지 발행인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또 제 26회 목회자세미나와 평신도세미나 CD 2벌도 함께 발매한다. 27회와 함께 총 4장의 CD를 합쳐 30달러에 판매 한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20달러(제 27회 목회자세미나)
30달러(27회 & 26회(평신도 포함) 우송료 별도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2면

미국내 동성애자, 더 이상 소수집단 아니다!



3면

캐나다 이누잇어(語) 성경번역 34년 만에 완료



7면

불기동 김홍도 감독(금란교회)



16면

인터뷰 김남수 목사, 강대은 목사

<뉴욕 미션 오케스트라 초청> NY Mission Orchestra

제 6 회

"새 생명 선교회"

The Great Mission For New Life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지휘 및 음악감독
유진웅
(Jesse You)



소프라노 최성숙



테너 김영환



피아노 지현희



사회 한지인
(KRB 방송인)



우정출연: 뉴욕색소폰 앙상블

2012년 6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플러싱 타운홀 (Flushing Town Hall) 137-3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 주최: 새생명선교회(The Great Mission for New Life)
- 후원: 퀸즈장로교회, 우드윈음악원, 강혜신 내과, 정연희 암과, 성갑재 외과, 명준모 위장내과, 정민국 소아과, 한원희 알러지과
- 협찬: KC-TV 방송, KCTS 미주기독교방송국, 교회일보, USAamen.net. 기독교뉴스, 라이프라인미션
- 티켓: \$20 / 문의(646)737-6728(새생명선교회) / (718)539-7929(우드윈음악원)



여름을 열며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여름을 알리듯이 별이 따갑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6월이 되면 많은 것이 시작되는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라는 새로운 경주 코스로 들어서는 12학년들과 대학을 졸업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개 짓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긴 여름방학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학교 수업 걱정을 내려놓고 싶겠 잠도 자고, 수영도 하고 여행도 하고 즐기자 기대감에 부풀어 날수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은 긴 여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하기에 분주합니다. 유년 주일학교는 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청소년부와 대학 청년부들은 수련회와 단기선교를 위해 더운 날 비지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급마련(Fund Raising)을 하느라 강렬한 햇볕에 얼굴이 검게 그을리며 교회 마당에서 벙커피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부모들은 90일이나 되는 긴 방학 동안 자녀들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며 특히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역시 6월은 머리싸움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6월은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영과 육이 함께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여름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성숙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단기 선교에 참여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비전 트립(Vision Trip)을 통하여 좁은 시야를 넓혀주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일상생활의 작은 권리를 포기하며 헌신의 맘을 흘림으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비전을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수용하는 기회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6월을 열면서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드십시오. 담도 없는 한없이 푸르른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마음껏 꿈을 펼쳐보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늘로 비상하는 꿈을 꾸십시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열매를 맺어 그분께 돌려드리기 위해 작은 헌신을 드리십시오. 이번 여름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 위해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으로 6월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창6:9).



미국내 동성애자, 더 이상 소수집단 아니다!

더 아틀란틱, 네 명에 한 명 꼴... 현명한 대안마련 촉구 보도

9.11사태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는 “이슬람포비아”라는 단어이다. 이슬람 급진주의를 신봉하는 일카에다에 의한 테러이다보니 이슬람이란 말만 들어도 공포가 느껴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인정 발언에 따라 미국은 다시금 문화전쟁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이유나 대책 없이 “동성애”라는 말만 들어도, 소위 “호모포비아(homophobia)”에 빠져드는 보통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동성애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상 이상의 동성애자들이 있는지, 아니면 거품으로 부풀린 허상에 속고 있는지, ‘더 아틀란틱’(the Atlantic)은 동성애 논란은 바로 정확한 숫자 파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도한다(Americans Have No Idea How Few Gay People There Are: Surveys show a shockingly high fraction think a quarter of the country is gay or lesbian, when the reality is that it's probably less than 2 per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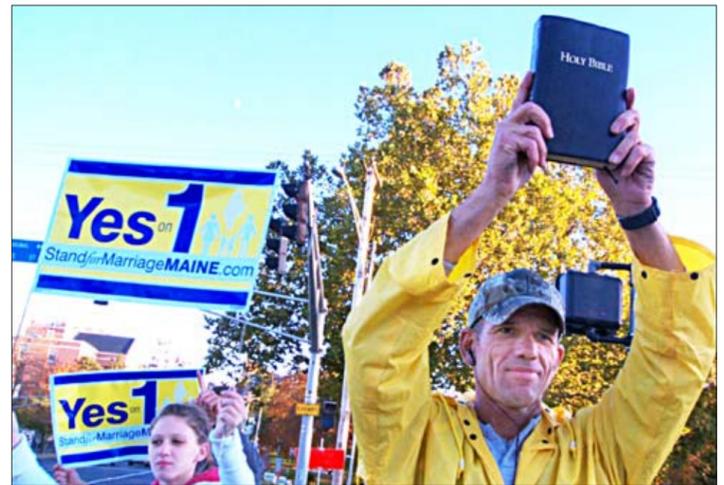
미국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의 정확한 숫자는 얼마일까. 결론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윌스트리트저널(WJS)은 최근 “많은 통계학자들이 동성애 숫자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과거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10년간의 각종 연구결과를 평균 잡은 것일뿐 확실한 통계치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인구 학자들은 3.5%라는 수치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 때문에, 미국사회가 추정하고 있는 동성애자 숫자는 수백 배 할기에 불과하다고 더 아틀란틱은 지적한다.

미국사회 통념상 동성애자는

(Marriage Equality USA)를 선봉으로 한 로비나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 동성애가 더 이상 “주홍글씨”처럼 죄악이나 저주가 아닌 개인의 정체성을 알리는 표지이자, 21세기의 문화 코드라는 작전이 미국사회에



각 주내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통계 불가능할 정도로 급증

오바마, 동성결혼 인정 무리수·복음주의진영에는 ‘쓰나미’

와 현재의 추정치 간에 엄청난 격차가 있으며 질문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진다”면서 인구 통계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조사는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신뢰성 있는 동성애 숫자를 집계한 것으로 평가되는 60년 전의 알프레드 킨제이 조사 결과는 성인 10명중 한 명이 동성애 또는 양성애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많은 통계학자들은 의문을 가져왔다.

또한 미국 인구조사국은 2008년 조사에서 동성애 또는 양성애라고 답한 인구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 기관의 조사국장인 하워드 호건조차 질문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고 말할 정도다.

이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사회과학자로 평가되는 캘리포니아대학교 윌리엄스 연구소의 게리 게이츠 박사는 최근 동성애 비율이 성인인구의 3.5%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수치로 보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희박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게이츠 박사의 연구물은 서로 다른 샘플 사이즈와 인터뷰 형식을 채택한 여러 조사들을 결합시킨 결과여서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가령 2009년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의 조사는 5만 명의 캘리포니아인들을 상대로 전화 조사한 결과 3.2%가 동성애 또는 양성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지만, 같은 해 인디애나 대학이 전국의 성인 남녀 5천9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5.6%가 동성애, 양성애자라고 답했다.

WSJ는 “조사 대상자들은 전화나 면담면 인터뷰보다는 컴퓨터를 통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밝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조사 문항지에 들어있는 ‘이성애자’(heterosexual)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상당수에 달해 동성애자 수치를 명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힘들다”고 전했다.

결국 동성애자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통계상으로 산출하기가 어렵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추정된다. 이는 킨제이 보고서의 유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호모나 레즈비언이라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이 2011년 5월 실시된 설문 결과 거의 25%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 숫자 통계에 있어서 더욱 더 심각한 점은 아직까지도 ‘커밍아웃’을 시도하기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부류까지도 포함한다면, 미국인 10명 중 3명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 분포상 이들은 더 이상 소수 집단이 아니다.

여기에는 동성결혼용호단체

만연되었다는 점이 기여한다.

따라서 동성결혼이 미국사회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수, 복음주의 진영의 염려는 기우가 아닌 향후 미국 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는 쓰나미와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더 아틀란틱’은 경고한다.

‘더 아틀란틱’의 경고는 동성애자들의 결혼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0년 전만하더라도 시빌 유니언이나 도메스틱 파트너십과 같은 준 결혼형태의 동성결혼은 거의 7만 5천쌍 정도였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목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4.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Midwest 정기 여름 특강

June 18(월) - 22(금)

2012 학년도 학위 수여식

June 22(금) 오후 3:00

Midwest Summer Concert

June 22(금) 오후 7:00

International Seminar

June 22(금) 오전 9:00 - 오후 1:20

"Christianity Culture and the Future China"

성경원어 연구원 여름 특강

특강과목: 히브리어 입문
일정: June 18(월) - 22(금)
강사: 오명환 교수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캐나다 이누잇어(語) 성경번역 34년 만에 완료

내셔널포스트, 북미원주민 에스키모 위한 성경번역완성 보도

캐나다의 북동부에 있는 누나부트(Nunavut) 주의 원주민들 언어인 이누잇어(Inuit, 한국과 미국에서는 '에스키모'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북미원주민 부족의 언어, 역주) 성경 번역이 34년 만에 완료됐다. 캐나다 성서공회(Canadian Bible Society)와 성공회교회(Anglican Church)가 함께 참여한 170만 달러의 이누잇어 성경 번역 사업이 완료돼 지난 6월 3일 누나부트 주의 이카루이트(Iqaluit) 시에 위치한 성 유다 성공회 성당(St. Jude's Anglican Cathedral)에서 봉헌식이 이뤄졌다고 캐나다 일간지 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는 보도했다(Inuit-language bible finished after 34-year project).

이누잇어 성경번역 사업은 지난 1978년 시작돼 그동안 5명의 성공회 신부가 이끌어왔는데, 이 5명은 모두 이누크인(Inuk, 한국과 미국에서는 '에스키모'로 더 잘 알려진 북미 원주민 부족, 역주)이다. 캐나다 성서공회는, 이번 이누잇어 성경번역은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성경번역 작업이 선교사들이 아닌 현지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들에 의해 완료됐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성서공회의 성경번역 책임자 위엔스(Hart Wiens)는 성경번역 작업이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아주 복잡한 작업인데, 특히 이번과 같이 고대 중동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 북극에 사는 주민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 있어 문화와 지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다른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성서의 '목자'는 이누

크티투어(Inuktitut, 캐나다 북동부에 사는 원주민 언어인 이누잇(Inuit)어의 한 갈래, 역주)에서는 야기를 돌보는 사람과 개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함께 쓰이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한 성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의 이름들이 이누크티투어 성경에서는 단지 '나무'라고 번역될 뿐이었다. 석류나 낙타와 같이 이누크티투어 언어에 없는 말들은 영어 단어를 그대로 빌려서 사용했다고 이번 성경 번역팀은 말했다. 특히 '평화'와 '사랑'과 같이 이누트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들은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사용했다.

이번 이누잇어 성경번역 사업은 미국 오클라호마(Oklahoma)에서 태어난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현대 성경번역의 창시자인 유진 나이더(Eugene Nida) 박사에 의해 시작됐다. 나이더 박사는 성경 번역에서



캐나다 북부 누나부트주, 통가 산맥 입구의 "영혼의 장소", 내셔널포스트 제공

현지어의 용어와 개념을 차용하는 비직역적/축자적(non-literal) 성경번역을 주창했던 인물이다.

이번 성경은 이누크티투어의 문자로 인쇄가 되는데, 이누크티투어의 문자는 1800년대 성공회 선교사들에 의해 문자가 도입됐다. 이누크티투어는 원래 문자가 없는 구술 언어(oral tongue)이다.

이투크티투어는 누나부트 주 전체 주민(31,906명, 2011년)의 70%가 사용하고 있으며, 영어와 불어와 함

께 누나부트 주의 공식 언어이다. 또한 이누크티투어는 모든 누나부트 주 정부 문서와 주의회에서 사용되고 있다. 누나부트 주의 주민 가운데에는 이투크티투어만 할 줄 아는 이들이 약 2천 명 정도 존재하고 있다.

캐나다의 2001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누나부트 주의 기독교인 비율은 93.2%(성공회 58%)이며, 이는 캐나다의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휴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과정

(1면에서 계속)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휴가를 위해서 일하고 돈을 모은다. 그러나 휴가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과정이지 그것을 잠시 내려놓거나 관계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휴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휴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합당한 자신과 가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는 진

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이고, 휴가를 가장 멋지게 보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휴가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첫째,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겨야 한다. 현대인은 무한 경쟁사회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열을 오직 일하는데 쏟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없어졌고, 때로 가장은 가족 가운데에서 소외되고 이방인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러기에

금년 휴가기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대화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의 휴가를 실행해본다.

둘째로, 자기 성장과 재충전의 휴가 기간이 되어야 한다. 현대인은 매일 일터에서 뛰다보면 자신의 모습을 상실하고 허무감과 허탈감을 느낀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기에 이번 휴가기간 동안에는 조용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성장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능(talent)을 개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일에 쫓

기고 너무 바쁘다 보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긴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기에 금년 휴가 기간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휴가가 된다면 참으로 유익하고 뜻 있는 휴가가 될 수 있다.

결국 '2012년 휴가는, 삶의 건강한 의미와 목적을 되찾는 문화생활의 기초로서의 여가, 이러한 여가의 기본 요소가 자유와 배움이라는 점을 전제로 가족이 함께 하는 이번 여름휴가를 색다르면서도 의미 있는 추억으로 아로새길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야 한다.

(2면에서 계속)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확정된 후 18,462쌍이 결혼 증명서를 받았고,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민발의안 8'이 통과되기 몇 달 전에 18,000쌍의 동성결혼이 실시됐다. 그런데 최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등

에서의 동성결혼 통계는 사실상 다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2012년 대선에 나선 이유는 바로 이처럼 급속도로 확산된 동성애자들의 증가, 즉 미국사회의 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 된다.

결론으로, 거의 미국 인구 중 1/4에 해당되는 동성애자들이 정치권이나 미국의 정책 설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아니 이들은 오히려 이제는 소수 집단이었기에 받아왔던 '공평과 균등'의 안전지대에서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해 미국사회의 향

방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까지 성장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동성애자들의 전략과 전술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성경적 진리와 대안으로 미국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때이다.

새소망 칼럼

단순하고 정직한 말을 하며 살아가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마5:33-37)고 교훈을 하신 적이 있다. 이는 단순한 교훈 같으면서도 사실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진실과 더불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처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의 압력에 굴하고, 이해타산에 이끌려 양심에 느끼는 “옳다”를 아니라 하고, “아니다”를 옳다 할 때

가 많은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신뢰를 받으려면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게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한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 같은 말을 반복하여 맹세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허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한 지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말을 많이 하고 맹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스타이어(Stier)는 “우리가 진실할수록 더욱 단순한 말을 한다. 그것은 남들이 우리의 한 말을 그대로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욥기서 8:5-6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 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했다(이는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권한 말이다). 이 말은 “지금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일 내가 깨닫고 청결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말하고 행하면 그 분이 너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보잘 것 없이 시작해도 나중에는 위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다.

6.25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피난 내려오던 어느 목사님이 겪었던 일이다. 공산당들이 길을 막고 행인을 한 명 한 명 잡아서 조사하고 성분이 이상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키고 있었다. 생사가 말 한마디에 달린 그런 절박한 순간에 처한 목사님은 하나님께 무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보배로 여기니 정직하게 목사라고 말하면 내가 책임져 주리라” 드디어 목사님 차례가 되었다. 공산당이 물었다. “너는 무엇하던 놈이냐?” “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공산당이 다시 말했다. “목수? 가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돌보아 주신다. 사43:4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 하리니 두려워말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범죄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보석이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이다. 보석은 그 주인이 아주 소중히 여기고, 항상 돌보고 사랑해주고 잘 간수하며 지켜준다. 보석은 흠이 묻어도 보석이다. 보석에 흠이 묻었다 해서 주인이 그것을 버리는 법이 없다(다윗, 모세, 베드로, 당자는 한 때 범죄하고 흠이 묻은 보석같이 되었어도 버림을 받지 않았다. 비록 한 때 때가 묻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보석은 때가 묻어도 역시 보석이다).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서 살다가 본의 아니게 때 묻고 더러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깨끗한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직한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정직만큼 값진 유산은 없다”고 했다.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에머슨). 정직한 말은 간단하다(세네카). 구약의 신13:18에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신6:18).

천상천하에 다른 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상관 목사
예장합동사목회협의회 총무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주강사
생명의 성령의 법 저자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복을 저자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며(요6:40, 요14:16~21)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으며(요10:27)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며(롬8:1~4)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요14:12, 행1:8)

왜 수십 년의 목회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벧후1:1~4)

그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롬8:1~4)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천국(The kingdom of heaven)되어 사는 천국복음을 전하셨습니다(마4:23~25, 9:35)

그 동안 수 천명의 목회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격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구원)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제10차 미주지역 목회자 및 사모 초청 생명의 성령의 법 집중세미나

우리 뉴저지에서 만나는 날!
진실로! 생애에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에 40여회 이상 참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때문에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확실하게 배우고 누려야 합니다. 이번 제9차 미주지역 집중 세미나에 많은 목회자들의 참석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권합니다.

예수제자선교회 장영출목사(02-872-7882)

일시 6월 4일(월)-5일(화) - 6월 7일(목)-8일(금), 6월 11일(월)-6월 14일(목) 10:00-16:00

장소 주 예수사목교회 1155 Hendricks Cswy, Ridgefield, NJ 07657 전화/551) 655-4224



접수 551)655-4224, 201)982-2520 ※ 전화로 접수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 (임마누엘장로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작년에 한국 일산에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어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반응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처사에 상처를 입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평상시 교회의 결정과정과 결정사항에는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와 평신도 사이에, 그리고 장년과 청년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대화가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는 상식을 넘어선 때가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 교회에는 상식이 통되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

문입니다.

한 여인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은 제자들에게 상식 밖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준비하는 행동이었으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의미를 알고 실천한 사람입니다(막14:3-9).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인정과 의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든 결정을 인정과 의리 차원에서 내린다면, 그 교회는 인간 수

준에 머무르게 되며,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단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상식을 더 편안하게 느끼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인정, 동정심, 의리로 교회 일들을 결정하는 것에 더 큰 호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노력으로 인정과 의리를 내려놓는 사람들은 자주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인정도 없고 의리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인정과 의리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인정과 의리는 참으로 소

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과 의리가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정과 의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낼 때, 우리는 비난을 무릅쓰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16:21-23).

비상식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됩니다. 메말라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경우, 언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상식과 인정, 의리를 서슴없이 내려놓는 우리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될 것입니다.

푸/ 른/ 초/ 장

박상훈 목사 (송동교회)



다(22~24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 있고, 응답 받는 기도의 둘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록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인지.

셋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25-26절).

사59:2 말씀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무엇입니까?

막11: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

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밝히셨습니다. “그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요14:12-13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째 마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 곧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어떠한 기도가 능력이 있으며, 어떠한 기도가 효과적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몸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시작할 때면 예수님이 손수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면전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까닭을 못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20-21절).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여태껏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드리는 첫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 다. 그 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만 스무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은 난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일, 반

복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일 등등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절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회상해보십시오. 그리하면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임을 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첫째 원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

마가복음 11:20-26

기도하며 구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겨자씨의 믿음을 생각해보십시오. 마13:32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겨자씨 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점점 자랍니다. 풀보다 더 커집니다.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해서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그것은 겨자씨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믿음은 그럴수

라 하시니라.” “서서 기도할 때에”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예컨대 눅18:9-14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고 세리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의 몸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골이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가 있다는 말씀의 본뜻은 마음에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품은 원한을 없애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 응답 받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의 원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14:12-13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째 마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 곧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이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응답 받는 기도, 효과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큰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재일목사의 명쾌한 성경해석책이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가복음

594면 / 18,000원 (1~13권)
653면 / 25,000원 (14~26권)
신규개정판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절기의 풍습, 이스라엘의 기후, 농사적 상황, 천천의 세사의 식물까지도 밝힌 문헌을 토대로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성경의 절기에 대하여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다면 이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밤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장재일 목사

- 부산신대목회원
- 예북성경대학성경지리역사학과에서
- 원주대학교 M.A. 과정
- 원주대학교 교회학목사
- 한국국제사서예연구소 연구위원
- 원주사서예박물관 큐레이터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12

서울국제도서전

6. 20. - 24. COEX A/B 홀

www.sibf.or.kr

http://www.israelsacademy.com

6월부터 이스라엘학원개원예배본격강의!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미국 도덕성의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는가? 미국인의 양심의 예민함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인데 미국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 이번에 보고된 갤럽조사는 미국인들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 조사를 통해서 도덕적인 현 주소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The Atlantic의 물리 불은 이번 달 갤럽조사를 인용해서 미국인들이 가진 도덕적 태도와 성향을 정리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조사는 미국인들이 산아제한에 대해

가진 죄에 대한 미국인들이 가진 다양한 태도이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노름(수용 64% 반대 31%)과 이혼(수용 67% 반대 25%)는 종교적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반면에 성적 부정에 대한 판단은 단호하다. 89%의 사람들이 배우자를 속이고 혼외관계를 맺는 것은 부도덕적이라 했다. 이런 결과는 왜 미국사람들이 성추문을 낸 빌 클린턴이나 대선주자이었다고 탈락한 존 에드워드 등에 대한 냉담한 태도가 유럽과 한국의 사람들과 다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복제

죄로 생각했다.

한편 미국인들의 음란물에 대한 태도는 의외이다. 미국인 중에서 2배가 가까운 64%가 음란물은 부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세계의 포르노 마켓은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런 차이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가격을 무릅쓰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갤럽의 이번 조사는 성도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도덕관이라서 더 흥미롭다. 통계는 어느 정점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포착하는 스냅샷(snapshot)이다. 정치인들은 통계숫자에 민감하고 숫자를 높이고 낮추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고 행하지만 성도들은 통계숫자를 따라갈 수는 없다. 진리는 투표로 결정될 수 없다. 빌라도의 재판이 불의였던 것은 빌라도나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 모두 다수결, 큰 목소리, 많은 소리,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선택하고 따랐기 때문이다. 사람의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덮으려 한 것이다.

서 인터뷰를 하던 스와가트는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집 베이커는 하나님나라에서 암과 같은 존재이니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했었다. 죄성이 드러나는 심리현상이다.

사람들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증거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졌지만 그래도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에 부분적이지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기능이 살아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이다.

또한 양심은 모두가 다 같은 양심이 아니다. 약한 양심이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 다 선한 양심이거나 깨끗한 양심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양심은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또 사람들은 어느 죄는 다른 죄보다 더 크게 여기고 혹은 가볍게 여기기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감각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악의 화신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미국인들이 도덕적인 이슈들에 대한 태도는 현재의 미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의 미국인들의 도덕적 태도의 변화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하여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한다(벧전3:15). 우리는 먼저 성경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배워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교회의 강단에서나 성경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직접 간접으로 전해져야 한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도덕적 이슈들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특별한 도덕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냥 놓아둔다면 도덕성의 퇴락과 함께 점점 세속화되어 갈 것이다. 갤럽이 신앙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조사했다면 성도들과의 더욱 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을 것이다.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미국의 도덕성의 현주소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성경에서 금하는 것에 대한 수용성이 더 높아지고 관용성이 더 증가하였다. 앞으로 더욱 더 세속화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세속화의 세대에서의 성도들의 절절한 생활, 빛과 소금의 사명은 더욱 더 중요하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독립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나성에서 윤 장로

A: 예루살렘은 AD70년 함락된 후 거의 2000년 동안 15개국 이상 국가들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무슬림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십자군 전쟁이후 터키의 지배아래 있었으나 1517년부터는 오스만 제국이 점령했습니다. 1896년에는 유대인 힐렐에 의해 시온주의(Zionism)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온주의는 유대인은 유대인의 땅 '시온으로 돌아가자'(알리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힐렐의 주장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알리아 인파"라고 부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한 알리아 인파는 크게 3번 있었습니

다. 사43:5-6에서는 이스라엘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고토로 돌아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특히 소련이 무너진 1989년에는 100만명의 알리아 인파가 북방 소련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입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밀고 들어오는 유대인들과 이미 정착했던 아랍인들 간에 작고 큰 충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이 전쟁으로 중동에 영국이

2534년 만에 이루어진 주권회복

주권하게 됐습니다.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화약이 떨어 공중에 처하게 됐을 때 영국 국방성에서 일하던 유대인 과학자 와이즈만 박사가 폭발물 제조방법을 개발해 영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독일과의 전투에서 영국은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영국정부가 보상을 하겠다고 하자 와이즈만 박사는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영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당시 영국 외무부장관 발포아는 아주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18년 "발포아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로 팔레스타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유대인 국가재건을 허락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1일 유엔이 이스라엘공화국을 승인했고 1948년 5월 15일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됐습니다. 이것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 정치적 독립주권을 상실한 이후 2534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권 상실 후 2534년 만에 다시 회복하는 역사는 세계 인류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인 유대민족들을 하나님이 과연 버리셨는가? "그럴 수가 없나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전 세계로 흩어 쫓아내기는 했으나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은 결코 우연한 생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도덕성의 현주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포르노, 복제, 부정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인들은 산아제한과 노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짐승을 죽여서 만든 털옷을 입는 것이나 사형제나 유산에 대해서는 음란 포르노보다 더 수용적이다. 미국인들은 자살, 일부다처제, 인간복제는 배우자에게 부정을 행하는 것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최근에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산아제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산아제한은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모든 이슈들보다 높았다. 수용과 거부 의 차이가 81점이나 더 많았다(도덕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다 89%.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8%). 산아제한을 반대하는 가톨릭의 교인들마저도 도덕적으로 수용한다는 사람이 82%가 되었다. 민주당이 이 정치적인 쟁점에 자신이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비록 정치적 논쟁의 핵심은 보다 더 큰 이슈인 종교적 자유와 정부의 규제에 대한 것이지만 산아제한에 대한 사람들의 도덕적인 이유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86%)나 일부다처(86%) 혹은 자살(80%)보다 더 높은 거부이다.

또한 털옷을 입는 것이나 즐기세요 연구는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60%). 노름이나 동성애, 혼외자녀 등도 약간의 차이로 더 수용적이다(54%). 또한 유산은 51%의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를 보면 왜 이런 내용들이 뜨거운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 의하면 일반 대중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차이의 정도를 보여준다. 복음주의자들의 도덕적인 이슈들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 복음주의자들은 간음은 100%, 합당하는 것은 98%, 맹세하는 것은 97%, 인종차별은 96%, 세금보고 하지 않는 것은 94%, 많은 잔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94%가 죄라고 생각했다. 유산은 94%, 음란물은 93%, 동성애는 93%, 혼전동거는 92%, 마약은 91%, 술취함은 90%가 죄라고 생각한다. 배우자 외에 음란한 생각하는 것은 84%. 동성애적 생각은 76%,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은 69%,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하얀 거짓말은 66%, 노름은 65%가 죄라고 생각한다. 담배는 47%, 심일조하지 않는 것은 42%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는 않다. 죄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인기투표나 지지도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가진 기준은 성경말씀이다.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이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죄이고,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죄가 아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 그 죄에 대하여 관대해진다. 그 죄를 합리화를 시킨다. 그 죄를 미화시키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 더 수용적이게 된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큰 소리를 내지 못한다.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적인 이슈에 대한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

또한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반대를 표현하기도 한다.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같은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못된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흥분한 것과 같다. TV전도자 짐 베이커 스캔들이 표면화되면서 시끄러울 때 지미 스와가트가 자기도 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공공방송에

라갈 수는 없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하여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한다(벧전3:15). 우리는 먼저 성경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배워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교회의 강단에서나 성경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직접 간접으로 전해져야 한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도덕적 이슈들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특별한 도덕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냥 놓아둔다면 도덕성의 퇴락과 함께 점점 세속화되어 갈 것이다. 갤럽이 신앙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조사했다면 성도들과의 더욱 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을 것이다.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미국의 도덕성의 현주소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성경에서 금하는 것에 대한 수용성이 더 높아지고 관용성이 더 증가하였다. 앞으로 더욱 더 세속화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세속화의 세대에서의 성도들의 절절한 생활, 빛과 소금의 사명은 더욱 더 중요하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담임목사청빙

뉴욕의 맨하탄과 가메론 뉴저지 주의 유니온 시티에 위치한 허드슨교회에서는 공석중인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허드슨과 가까운 지역을 사임하며 헌신하실 목사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 1. 자격**
 - a. 장구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M.Div 또는 이와 동등)으로 PCA 기법이 가능하신 분
 - b. 5년 이상의 Full Time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 c. 연명: 사모님, 한국어, 영어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 2. 제출서류**
 - a. 이력서 1부
 - b. 부사 및 가족소개서(성경배경, 신앙경험, 사경 포함) 1부
 - c. 목회비전: 목회 소망 및 교회 철학, 교회관의 및 운영 등 포함 1부
 - d. 설교 동영상 2편(3:3, DVD), Web-link
 - e. 추천서 3통
- 3. 제출마감**
2012년 6월 1일(신청광고 2012년 6월 1일, 60일간)
- 4. 유의사항**
 - a.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b. 서류 제출이나 문의사항은 가능한 이메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 성립된 분에 한해서만 면접을 위하여 개별 통지 합니다.
 - d. 개별 통지된 분에는 건강 진단서, 설교 원고 등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 e. 문서는 Word Doc 또는 PDF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허드슨교회 청빙위원회
총무위원장 김진수 장로

무관: Huds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Alt: Pastor Nominating Committee / Elder: Chinsoo Kim
2019 West St, Union City, NJ 07087
E-mail: hudsonpca@gmail.com

허드슨 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낼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영 어 :	_____	_____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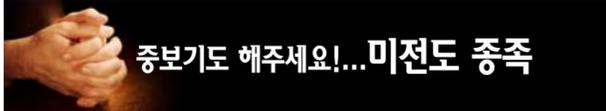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45년 역사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방글라데시의 탕창야(TANGCHANGYA)

탕창야족은 방글라데시의 남동쪽 치타공 구릉지역(Chittagong Hills Tract)에 산다. 이 지역의 열대성 구릉과 산들은 방글라데시의 나머지 평야지역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탕창야족은 차크마(Chakma)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탕창야족을 차크마족의 일부로 생각하기도 한다.



탕창야족은 인도 아리아(Indo-Aryan)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탕창야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탕창야어는 벵갈어와 관련이 있다. 방글라데시의 다른 어떤 부족보다 방글라데시의 주류 문화에 가장 많이 동화된 부족이기 때문에 많은 탕창야 사람들은 벵갈어를 두번째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마지막 1세기 동안 강대국들이 탕창야족을 점령했다. 1947년까지는 영국이, 그리고 1971년

까지는 파키스탄이 이 지역을 다스렸으나 지금은 독립국이 됐다. 인구증가로 평야지역에서 이주해온 벵갈족으로 인해 탕창야족은 그들의 땅에서 빠른 속도로 소수민족이 되고 있다.

삶의 모습

탕창야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로 전통적으로 화전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구릉지구의 가장 높은 지역에서 사용된다. 적은 면적의 숲을 잘라내고, 불태우고, 그 자리에 각종 곡식을 심는 것이다. 현재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화전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많은 탕창야 사람들이 관개와 쟁기를 사용해 낮은 언덕이나 저지대에서 농사를 짓는다.

가장 중요한 작물은 쌀이지만, 면화, 오이, 호박, 고구마, 옥수수

다양한 열대 과일도 재배한다. 주요 농업 도구는 '다오(dao)'라고 하는 긴 칼로 짐을 짓고 곡식을 거두는 등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 사용된다. 흔히 가족으로 소, 물소, 돼지, 염소, 양을 키우고 있으며 거의 모든 탕창야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있다. 집은 땅으로부터 보통 6피트 정도 높이에 나무와 대나무 기둥 위에 지어진다. 대나무는 또한 벽과 지붕을 만드는 데도 많이 사용된다. 아주 소수의 집들만 지붕이 주석으로 돼있다.

탕창야의 남자는 들판에서 일하고 여자들은 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을 청소하고 물을 길고 천을 짜고 세탁을 한다. 하지만 여자들도 남자들이 들판에서 일하는 것을 돕고 남자들이 아이들 돌보는 일을 거둔다. 기본적인 가족단위는 핵가족이다. 비록 여러 명의

배우자를 두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결혼은 보통 부모들이 준비하지만 당사자의 의견도 고려된다. 대부분의 부족들은 가족이나 일족간의 결혼은 금한다.

신앙

치타공 구릉지역의 다른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탕창야 사람들 역시 대부분 불교도이다. 탕창야족은 불교의 한 갈래인 테라바다(Theravada) 종파를 따르지만 힌두교와 정령신앙의 요소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많은 혼적인 존재가 실재한다고 믿으며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해를 미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바이도(baidyo)라고 불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과 샤먼들이 마법, 주문, 영혼의 소유를 통해 사람과 영

적인 세계 사이를 중재한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방글라데시는 가난한 나라이다. 다른 대부분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처럼 탕창야족도 대부분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며 열악한 건강관리로 고통 받고 있다. 연평균 수입은 200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더욱이 탕창야족은 벵갈족 정착민의 유입 때문에 점점 실 자리를 잃고 있다.

탕창야 사람들은 불교와 정령신앙에 매여 있다. 몇 개의 선교단체가 탕창야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지만 이 부족을 복음으로 이끌기에는 도구가 턱없이 부족하다. 성경과 영화 '예수' 모두 이들의 언어로 번역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언어로 방송되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도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북한 내 무속신앙 확산

북한 내에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접이나 굿, 부적 등 미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윤여상)가 최근 탈북자 6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1 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각박한 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절술과 무속신앙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을 갖거나 관상, 손금, 점 보는 미신행위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같은 미신행위가 청소년층에게까지 확산, 북한 당국이 미신행위 확산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북한 당국과 군, 보위부 관리들조차 무당과 점쟁이를 찾기에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복제로는 쌀이나 가축, 현금 등을 준비하는데 한 달치 월급을 내는 경우도 있어 비싼 수준이다.

심지어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결심할 때도 점, 부적 등의 미신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 해 한국에 있는 지인의 도움으로 북한을 떠나 중국 모처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심영숙(가명·37)씨는 탈북을 결심하기까지 점 보는 사람들의 도움이 컸다고 했다. "제가 강을 건너기 전에 점을 치는 사람을 두 명이나 만났습니다. 귀인이 나타나 도와줄 것이라고 해서 제가 두만강을 건넌 겁니다." 먼저 탈북한 남편을 찾아 최근 한국에 입국한 김윤희(가명·42)씨도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 다녔다. 이를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택하기 전에 점을 보고 탈북 날짜와 방향을 정한다.

북한 당국은 무당굿을 비롯한 미신행위가 확산되자, 주요 도시마다 '비사회주의 그루빠'(일명 타격대)를 조직해 무당과 점쟁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워낙 사회 깊숙이 파고든 데다 주민들도 교묘히 단속을 피해가고 있어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북한 내에서 무속신앙과 절술이 성행하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생활에 위기



를 느낀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백서는 분석했다. 특히 세계적인 종교탄압국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이 종교에 의지할 수 없게 되면서 대신 접이나 부적 등 미신행위에 기대게 된 결과, 북한은 이제 주민들의 탈북까지 미신행위가 결정하는 세계 제1위 미신숭배국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포교 · 피해 사례 갖가지

한국의 신천지대체한국 기독교연대가 밝힌 신천지의 포교 방법은 철저히 신분을 감춘 채 속임수와 거짓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고 관계를 형성한 후에 비밀요육장소로 유인한다. 교육과정에선 말세에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약속한 목자, 천년왕국, 육체영성 등을 교묘히 감춘 채 비유포교를 통해 서서히 세뇌시킨다.

또 밭과 산은 교회를 비유한 것이라 하여 기성 교회나 최근에는 성당에까지 신천지 신도들을 잠입시켜 성도들을 빼앗는 소위 '추수꾼 전략', 작은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산 옮기기 전략' 등 비양심적인 포교행태를 보이는 종교집단이다.

신천지 신도들은 올해 만 81세인 이만희 교주의 사망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사망하면 신천지 내에서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게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천지는 이외에 '만남'을 비롯한 수십개의 위장 봉사단체를 조직해 국가와 공공기관까지 기만하고 있으며, '천지일보'라는 신천지 홍보지와 신천지 신도를 여러 언론매체에 기자로 위장잠입시켜 신천지를 옹호하거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피해자 오 모씨는 "3년 전 신천지에 빠진 아내가 매일 아침 8시에 나가 오후 10시에 들어온다. 잦막이 어린애를 낳고 보름간 집을 나간 경우도 있다"며 "정통 교회에 나가 상담을 받아보자는 권유에도 상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또 박 모씨는 "7년 전 신천지에 빠진 동생이 부모의 목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해 부모가 결국 병이 났다"고 말했다.



북-중 점점서 목회 선교사 교통사고로 숨

중국과 북한 점점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벌여온 강호빈(58) 선교사(기독교대한성경교회 소속)가 지난 27일 의문의 교통사고로 당했다. 현지 선교사에 따르면 강 선교사는 주일날인 지난 27일 오후 2시쯤 지린성 옌벤 내 한 조선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역지로 혼자 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버스



와 충돌해 현장에서 숨졌다. 이번 사건은 중국 옌벤 공안국이 최근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시점에 발생한 것이어서 북한의 개입 의혹이 커졌지만, 정부는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강 선교사의 차량과 충돌한 버스 안에는 운전사와 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이 중 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지 선교사들은 "중국 공안 당국이 '강 선교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뿐,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테러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선교사는 "사고 현장에 버스의 잔해도 없었으며 버스 기사의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정부는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옌벤 공안국과 접촉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앞서 강 선교사는 지난 해 8월 22일 괴한에게 독침 테러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바 있다. 독침 피습 직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는 잠시 한국에 나와 있었지만 올해 초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 중국 옌벤으로 다시 들어갔다. 고 강호빈 목사는 지난 1995년부터 연변해양대학에서 기독교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2001년부터 조선족 목회와 북한 이탈주민을 돕는 일에 헌신해왔다.

한편 강 선교사의 유해는 4일 한국으로 들어와 6일 장례를 치르고 청주 서문교회 묘원에 안장됐다.

'하나님'에 대한 오바마와 롬니의 관점 차이

롬니와 오바마 대통령이 보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대해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롬니는 미국의 성공을 말할 때 개인주의

적(Individualistic) 입장을 견지한다. 반면, 오바마는 집단주의적이다. "American Jesus"(미국적 예수)라는 책을 쓴 스티븐 프로세로는 "자유(Liberty) 대 공동체(Community), 이것은 전형적인 미국의 딜레마이고 항상 존재해왔다"고 말한다.



롬니는 리버티대학 연설에서 매우 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믿음이란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믿는 복음주의자들의 표를 겨냥한 것이다. "위대한 크리스천의 드라마는 집단주의적 활동을 따르는, 심지어 나라를 따르는 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항상 사적이고, 개인적이다, 개인의 삶을 펼쳐 놓는 것이었다. 믿음의 남녀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성심으로 올바른 행동을 위해 노력하며,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간다."

롬니의 이런 종교적 가치는 자신의 믿음에 근거한다. 즉 하나님은 개개 미국인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국가가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임원의 월급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개인적 책임을 다하고,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면, 미국은 잘돼갈 것이라는 의미다.

오바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는 최근 연설 때마다 미국 국민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을 포함해 모두가 희생해야 한다, 한명의 실패는 모두의 실패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의 이 말은 그가 동성결혼을 지지할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는 이 결정의 핵심은 "황금률, 즉 네가 대우받기 바라는 것처럼 남을 대우하라"였다고 말한다.

최근 "The View"에 출연했을 때 오바마는 모든 미국인의 공동 운명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선거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와 모든 사람이-동성연애자이건 흑인이건, 장애인인건 누구든지-미국이 계속해서 특별한 기회의 땅이라고 느끼는가 아닌가에 있다."

그는 특히 버나드대학 졸업식에서 이것을 더 강조했다. "우리는 우리의 과제가 해결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조직 속에서, 우리의 정치 속에서-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의지를 같이 불러 모을 수 있나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টে모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불기등

김홍도 목사 (금관교회 동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변함 없는 목표는 남한을 적화통일 하는 것이다. 어느 야당의 인사는 “만약에 정권을 탈취한다면... 한미FTA를 파기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궁극적으로 우리민족끼리(미군철수) 국가연합이나 남북연방제를 거쳐 통일을 이룬다”라고(한국논단, 5월호) 호언장담했다. 또한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로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미국과 휴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압박하고, 미국을 해롭게만 하지 않는다고 약속만 하면 국교수립을 못 할 리가 없다고 본다. 그 후의 일은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동을 보기도 해왔다. 현재 60여 년 동안 북한 땅을 덮었던 사탄의 먹구름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밀려오고 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 물리칠 생각은 하지 않고, 달러(dollar)를 보따리 보따리 싸다 주면서 한국의 적그리스도에게 아부하며,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고, 한국의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믿고 그 앞에서 고백한 목사도 있었다. 그런 목사의 아들이 국회에 들어오기도 했다. 만약 적화통일이 되면 모든 교회가 다 파괴되고, 북한처럼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또,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성도들은 무참히 죽게 될 것이다.

를 사형시켰으며, 군장성급 60%도 사형시켰다고 1956년 전당대회 때 폭로했다. 비밀경찰 두목 에조프가 스탈린에게 갖다 바친 살인자명단이 책으로 383권인데,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총 4,500만명이다. 김일성, 김정일이 전제로 죽이고 굶어 죽인 자 총수가 700만 명이나 된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는 마귀의 사상(Satanism)이며, 마귀는 살인자(murder, 요한복음8:44)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더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로라”라고 했고,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라고 했다. 여기서 사탄 혹은 마귀

3. 경제가 몰락하여 거지의 나라가 될 것이다.

칼 막스(Karl Heinrich Marx)는 “공산당 선언”(1848년)에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다함께 일어나 자본가들의 재산과 공장을 빼앗아 공동의 소유로 만들자”라고 하며, 혁명완수를 위해서는 “살인도, 방화도, 거짓말도 불사 한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공산화 통일이 되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못사는 거지의 나라가 된다. 그 이유는 ①공동의 소유로 하고 공동으로 일하게 될 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가림만 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연구개발을 하지 않게 되므로 거지의 나라가 되고 만다. ②재벌을 해체하고 가진 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최대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것이다. ③외국인들은 투자를 안 할 것이고, 주식이나 자본을 다 회수해 갈 것이다. ④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최대한 굶어모아서 미국이나 일본에 못가면 아시아의 어느 빈국이라도 가서 죽지 않고 살아 보려 할 것이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00불을 받지만 당에서

이다. 북한 공산군이 부산지역까지 파괴세로 밀려와 적화통일을 눈앞에 두었으나 미군과 유엔(UN)군이 상륙하여 반격해 올라갔고,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쫓겨오게 되자 적화통일을 못하고 있다. 아직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적화통일을 못하고 있는데, 미군이 철수만 하면 적화통일은 시간문제이다.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여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면 미국을 해코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총선에서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으니, 대선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면 반공 애국사상이 투철하고 국가관이 똑바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좌파정권이 들어서지 못하게 할 수 있다.

(二) 한국의 어려운 위기 상황

1. 대한민국의 정치, 언론, 종교, 문화, 교육, 노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종북·좌파세력이 구석구석 침투되어, 합법적 보호아래 세력을 규합하여, 그 세력이 날로 날로 확대되어 공산주의로 붉게 물들어가

야 될 나라라고 하며 북한이 전통적인 민족국가라고 하는데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좌파사상을 가진 법관이 2천 명이나 된다고 한다(한국논단, 4월호).

5. 온 세상이 다 집어던진 공산주의를 유독 한반도에서만 김일성 양조를 떠받들고 있다.

(三) 실태 분석과 전망

1.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종북·좌파세력들은 서로 연대하여 자신들의 투쟁노선에 방해되는 일에는 사사건건 시비와 투쟁으로 무고한 시민과 어린 학생까지 끌어들여 이들을 방해삼아 당국의 공권력 행사를 저지시키고, 여론을 호도하여 정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내문제를 유엔(UN)을 비롯한 여러 외국에까지 비화시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2. 점차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며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하면 북에다 보고하고 신임을 받고나서 재 지령을 받아 투쟁목표의 강도를 높여 투쟁을 계속한다.

3.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북의 지령대로 반공법폐지, 주한미군 철수, 남한 적화통일을 실현하려는 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들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삶을 계속하며, 북한에 목졸이 걸려 끌려가고 있다.

4. 앞으로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종북·좌파 척결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비대해져서 손을 댈 수 없는 형편이고 좌·우가 싸우다가 경제는 몰락하고 자칫하면 제2의 월남사태가 오고, 제2의 민중반란사태가 오기 쉬운 형편이다.

5. 더욱이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중에서 3,500명이나 되는 반공, 첩보 기관원이 좌파정권 때 축출 당했고, 당시의 전문요원이었던 이들은 반통일 분자로 딱지를 부쳐 매도하고 있으며, 남아 있는 사람들은 등뼈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6. 이런 조건하에서 종북·좌파들은 북의 지령을 받아서 정면으로 공권력에 도전하고 대중을 선동하며 권력화하여 가만히 앉아서 접수만 하면 될 형편이며, 종북·좌파들은 더욱더 치밀하고 악랄하게 적화통일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선교하는 민족으로 선택된 한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북한이 먼저 붕괴될 수 있다.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요한계시록 12장 3-4절, 11-12절

(一) 적화통일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 제일 먼저 모든 교회를 파괴하고, 참된 기독교인들을 총살하거나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내서 일하다가 죽게 할 것이다.

북한에는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남한보다 교회도 더 많고 교인도 더 많았으나, 그 모든 교회를 다 파괴했고 참된 기독교인들을 총살하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내어 일하다 죽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철저한 무신론이며, 유물론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김일성 주체사상)가 이름만 바꾸었을 뿐)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참수하는 것이 그들의 주 업무이다. 오늘날 남한의 종북·반미·좌파들도 같은 사탄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성추행하고 살인한 사람을 ‘목사’라고 거짓말하며, 목사를 폄하하며 교회를 파괴하고 성직자들을 매장하려고 한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선전한다.

본인은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영을 듣고 설교준비도 한다. 또 사탄 마귀와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수없이 많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활

2. 대량학살(Holocaust)이 일어날 것이다.

크메르(Cambodia)의 폴 포트(Pol Pot) 정권이 청소년들을 시켜서 200만 명 이상이나 무참히 살해한 것을, 영화 “킬링필드(Killing Field)”에서 잘 보여주고, 월남이 적화통일 한 후 300만 명을 사상살아온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반체제 운동에 앞장섰던 목사, 승려, 신부들을 먼저 체포해서 죽였고, 일부는 아직도 감옥에서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모택동이 공산혁명을 빙자해서 총살하고, 굶겨 죽이고 열여 죽게 하고 흉위대 젊은 아이들을 통해서 죽인 사람을 다 합하여, 6,300만 명이(다큐멘터리), 로버트 콘퀘스트(Robert Conquest)가 쓴 “The great terror”(거대한 폭력)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스탈린(Joseph, Stalin 1879-1953)은 1936-1938년간의 숙청에서 10월 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 90%를 죽였고, 그 후에 입당한 사람 50%

를 “붉은 용”이라고 했는데, 붉은 색은 핏빛이요, 피는 잔인성과 살인을 의미한다. 즉, 붉은 용은 마귀요, 마귀는 빨갱이이며 붉은 사상은 마귀이다.

공산주의 사상이나 주체사상, 마오쩌둥사상(Maoism)은 다 무신론이며, 영혼의 존재, 정신의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파괴, 개, 돼지처럼 서슴지 않고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인간은 영(Spirit)과 혼(Soul)과 몸(body)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마치 계란이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위,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것과 같다. 모든 식물(plant)은 몸만 있고 모든 동물(animal)은 몸과 혼이 있고 사람(Man)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영생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죽기 전에 말하기를 적화통일한 다음에 적어도 천만 명(죽이거나, 해외로 추방시킴)을 줄이고, “남북한 합쳐서 5,000만 명이면 된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한국역사 이래 없었던 대 살육이 자행될 것이다.

다 빼앗아가고 본인은 1불씩만 타가지고 간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종북·반미·좌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대한민국은 없어야 될 나라이고 북한이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라고 하니,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많은 백성들이 다 미혹 당하고 있는 것이다.

4. 미군은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것이다.

적화통일 되기 전이라도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싸우지 않기로 했으니, 미군은 철수하라고 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고령방제를 거쳐서 통일국가를 이루어 살겠다고 할 것이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광화문 네거리에 인공기가 휘날리게 되고, 대학마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강의해도 말할 길 없게 된다. 방송, 신문사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국기를 연주하고 지금 북한에서 자행하듯이 아무 불합당도 공중 앞에서 인민재판에 부쳐 공개처형도 하게 될 것

고 있다.

2. 이런 상황은 불과 15년 동안에 급속도로 진행되었는데 이제는 국가권력도 보수파정권에서도 여찌해 볼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3. 이리하여 나라 전체가 종북·좌파세력의 손아귀에 넘어갈 것 같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보수우파는 없고 있어도 독동이 들어오지 못하는 개처럼 되어가며, 종북·좌파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세월 나라를 가난에서 구하고 자유를 지켜낸 진짜 보수세력은 이제 육신이 늙고 경제능력도 없어서 마음과 기백만 살아 나라를 걱정만 하고 있으며 육신의 기백마저 점차 사라지고 있다.

4. 이렇게 된 원인은 좌파 정권 10년 하에서 면죄부를 주고 보호막이 되어준 까닭이다. 이에 편승하여 고경찬정들과 남한 내의 주사파까지 주동이 되어 남한 국민을 하고 지금 북한에서 자행하듯이 아무 불합당도 공중 앞에서 인민재판에 부쳐 공개처형도 하게 될 것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새끼 새끼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 문화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reformeduniv.org
 TEL: (714)870-1101 FAX: (714)796-0104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가여 영를 영당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례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 한인 교회 주소를 수목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5-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686-4400 Fax:(718)6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66
 E-mail: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목주소	_____
⑥ 사목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⑦ E-mail Add.	@ _____
⑧ Web Add.	http:// _____
⑨ 소속교단(정교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하십시오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터너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8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유통점

2707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08 www.lifebook.co.kr
 TEL: 818.282.4884 Fax: 818.282.4884 Email: wordoflife@lifebook.com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넘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생계보와 문서인도 후원을 받으십시오.

www.chpress.net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Tel. (718)686-4400, Fax. (718)686-0074
 E-mail: ny@chpress.net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9. 성경의 쿡쿡증들(11) - 성경의 수학적 오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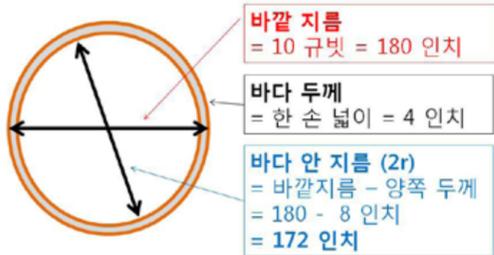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 혹은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란 말을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후주의 유명한 창조과학자인 조다단 사파티 박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이렇게 짧게 대답한다. “교과서는 언제나 많은 오류와 몇 년 지나면 구식이 되어버리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고 언제나 새롭다!”

성경보다 과학을 위에 놓거나 성경과 과학을 대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중의 하나는 가능하면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기회만 되면 성경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성경을 어떤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단어 하나하나를 살살이 뒤져서라도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비뻬어나 진화론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와 다른 성경의 과학적 표현을 틀렸다고 말한다. 그 뿐 아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수학에서도 성경의 오류를 찾았다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나는 “평범한 크리스천의 과학 끌어안기”라는 주제의 강의 CD를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에서 한 강연인데 이 강사는 ‘하나님께서 동물로부터 사람이 되게 했다’는, 하나님도 믿고 진화도 믿는 천체 물리학 박사였다. 강연의 요지는 세상 수많은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믿고 있는 과정(진화)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으면 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믿으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것이다. 강연 중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로서 수학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였는데, 성경은 수학적으로도 사실일 수 없는 기록이란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이다.

그 문제의 구절은 역대하 4:2이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

이 동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이 구절은 솔로몬 성전에 물을 받아 두는 그릇(바다)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이 둥근 그릇의 지름이 10규빗이고 둘레는 30규빗이라고 했다.

성경 틀린 것 증명 못해, 그들 믿음이 성경과 다를 뿐 영생을 원하면 성경에 과학을 더하려는 시도 말아야



솔로몬 성전의 바다 안쪽 둘레(30 규빗)
= 2πr = 2 x 3.14 x 86 인치
= 540.08 인치
= 30 규빗 (540 인치)

잠시 돌아가 보자. 원의 둘레는 2πr이다. 여기서 r은 원의 반지름이고 π는 3.1415926535...로 나가는 무한히 긴 상수로 알려져 있다. 이 지식은 사실로 여겨진다. 다시 역대하 4:2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성전의 바다 지름(=2r)이 10규빗이므로 반지름(r)은 5규빗이다. 따라서 원주(2πr)는 2 x π x 5 = 31.4규빗이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30규빗이라고 적혀 있다. 그 강연자는 바로 이 부분이 성경의 정확성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성경은 과학 교과서도 수학 교과서도 아니므로 성경을 어떤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과학자들의 주장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기

록되어 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돌레와 같이 백백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빛을 담겠으며”(역대하4:5). 그 성전의 물을 담는 바다의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하다는 것이다. 즉 그 그릇의 두께가 약 4인치쯤 된다는 것이다.

다시 정확한 모양을 생각해보자. 그릇의 바깥지름이 10규빗(180인치)인데 그릇의 두께가 4인치라면 그 그릇의 안지름(2r)은 172인치 되고 반지름(r)은 86인치가 된다. 따라서 담을 수 있는 물 부피에 직접 관련이 된 원주의 길이 2πr=2 x 3.14 x 86인치=540.08인치 즉, 거의 정확하게 30규빗(30x180인치/규빗=540인치)이다. 그러나 역대하 4:2의 기록은 더 정확하다. “주위는 삼십 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라고 정확히 30규빗이 아니라 그 정도라고 빈틈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삼십 규빗은 물의 양을 규정하는데 꼭 필요한 수치다. 성경의 표현은 그릇의 바깥지름과 안지름 둘 다를 담고 있는 가장 간결한 수학적 표현이다. 하나님의

행의 근저에는 속임수 아니면 사실에 눈을 감아버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성경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 고서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필자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문제 제기과 더불어 해답도 이미 오래 전에 나와 있었다. 그러므로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았다면 그 강연자도 이 설명을 몰랐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과학적인 오류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이라 그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과학적 주장에 성경이 맞지 않다는 사실만 발견해왔지 성경이 틀렸다고 증명하지는 못했다. 그들의 믿음이 성경과 다른 것이 사실이면 성경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과학법도 있고 다른 수사법도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가 아닌 문맥을 읽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역사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온 인류의 구원 필요성이 들어 있는 창세기를 어떤 그대로 읽지 않고, 과학자들이 증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고 있는 비뻬어나 아담의 존재 이전에 무수한 죽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의 태도에서 창세기를 읽으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도 없고 교회는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한다. 영국과 유럽이 그렇게 했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인 한국도 미국을 따라 가고 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더하면 안 된다. 성경에 과학을 더하려는 시도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다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잠30:6).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21:27).

성품칼럼 (32)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외동아이를 위한 성품교육 (3)

1) 세상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세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키우다 보면 아이는 경쟁과 타협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힘은 때로는 협상하고 타협도 하고 서로 원원하는 태도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지요.

12) 자녀 싸움에 끼지 마세요.
친구와 싸우고 오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부모가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과 싸움도 해보고 갈등을 겪은 다음 어떻게 타협해야 하는지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13) 자녀의 친구들을 관찰하세요.
내 아이만 보고 자식을 키우면 편협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 꼭 앞서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세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꼭 잘해야 하고 꼭 이겨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선의의 경쟁을 해보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15) 다른 아이와 비교하거나 조금해주시 마세요.
형제가 없는 외동아들은 객관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늘 우수한 또래 친구와 비교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비교하거나 조금해하는 부모의 모습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16) 부모의 권위를 가르쳐 주세요.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이라고 부모가 형제가 될 수는 없지요. 부모가 누나처럼 형처럼 되고 친구가 되는 관계설정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귀할수록 예절 있는 자녀로 키워야지요. 좋은 성품의 자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자기만 아는 버릇없는 태도로는 세상을 이기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품을 배운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행복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동아이를 ‘원만한 관계를 맺는 좋은 성품의 지도자’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비결 부모가 가르치는 성품 양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적절한 부모의 관심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성취에 대한 동기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외동아들이 학업적 성취나 동기유발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나눠 갖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러나 외동아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또래 관계 형성을 통한 배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외동아들은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 판단 능력이나 독립성이 부족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외동아를 어떻게 좋은 성품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3회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세계로 넘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보육: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찬양: 오후 8:3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주일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Tel: (704) 441-0621, Fax: (704) 441-0625 2819 Melow Rd., Charlotte, NC 28270</p>	<p>맨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보육: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오후 7:00 Tel: (704) 422-6630, Fax: (704) 422-6643 7760 Kings Rd., Arden, NC 28705</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보육: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주일 8:00 주일학교: 오후 8:00 Tel: (215) 222-0991, 267-071-7777 15260 Morris Rd., Lawrenceville, GA 300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보육: 오전 8:00(한국) 주일학교: 오전 10:15(한국) 공요절: 오전 11:30(한국) 수요찬양: 오후 8:30 Tel: (410) 949-1922, Fax: (215) 945-8682 1550 Woodman Rd., Lutherville, PA 21087</p>	<p>맨델교회 담임목사: 권용배 주일/보육: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30 공요절: 오전 11:30 수요찬양: 오후 7: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410) 431-1222, Fax: (410) 431-9827 2165 E.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명영 주일/보육: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3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508) 425-4578, Fax: (508) 425-4487 2 Main St., Boston, MA 02148</p>	<p>폴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보육: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410) 537-8444, 889-0181, Fax: (301) 944-1520 15200 Southview Ave., Beltsville, Lutherville, MD 21038</p>
<p>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보육: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45 수요찬양: 오후 8:3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주일 11:00 Tel: (704) 529-0905 / (888) 484-8888 701 Scotsboro Road, Charlotte, NC 28270</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보육: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오후 7:30 Tel: (302) 425-0281 6037 Peachy Ave., Box 2, NC 28388 Lacey, WA 98503</p>	<p>사이버링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보육: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15 공요절: 오후 7: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903) 227-0991, Fax: (903) 227-1745 4640 N. Co. 100th St., Waskom, NC 28592 www.lacone.org</p>	<p>알라바마 재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보육: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4:00 공요절: 오후 7: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205) 820-8048, 844-1179 805 Kirby Rd., Anniston, AL 36811 www.aljw.com</p>	<p>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보육: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3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803) 344-6445, Fax: (803) 344-2168 8220 Ridewood St., Anch., AK 99518</p>	<p>앨파소델린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보육: 오전 8:00(한국) 주일학교: 오전 11:30 공요절: 오후 7:30 Tel: (903) 915-5480, 915-5480 3419 Arline Ave., Ft. Worth, TX 761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보육: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714) 542-0288, Fax: (714) 542-6027 710 Weber Rd., Henderson, NV 89044</p>
<p>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보육: 오전 11:00 수요찬양: 오후 7:30 공요절: 오후 8:30 Tel: (254) 434-4701, (817) 431-4827 428 N. 5th St., Waco, TX 76767</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보육: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703) 491-4447, Fax: (703) 491-4448 4913 Matthews Rd., Alexandria, VA 223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원장 주일/보육: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8:3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903) 227-0991, Fax: (903) 227-1745 4640 N. Co. 100th St., Waskom, NC 28592 www.lacone.org</p>	<p>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병상 주일/보육: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410) 207-0716, Fax: (410) 207-0717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보육: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공요절: 오후 7: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253) 939-1998 2461 E. Verde St., Tacoma, WA 98406</p>	<p>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보육: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8:30 공요절: 오후 7: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253) 425-8217, 821-8424 6424 E. 14th Ave.,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4일/보육: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253) 827-8875, Fax: (253) 827-8111 4424 E. 14th Ave., Tacoma, WA 98444</p>
<p>렘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보육: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480) 377-0125, Fax: (480) 367-3487 1102 E. Osborn Rd., Chandler, AZ 85286</p>	<p>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보육: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공요절: 오후 7:45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860) 648-4720, Fax: (860) 674-6685 200 Chapel Road, Wallingford, CT 06495</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넘어가는 교회</p> <p style="text-align: center;">하와이 지역</p>	<p>아가페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보육: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공요절: 오후 7: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808) 725-0911 1528-A Paloa Ave., Honolulu, HI 96818</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보육: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30 공요절: 오후 7: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253) 728-7004, Cell: (253) 728-4282 1053 9th Ave., Honolulu, HI 96815</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보육: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 공요절: 오후 7: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808) 977-2598, 927-1778, 942-8282 1562 E. Bernice St., Honolulu, HI 9681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보육: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공요절: 오후 8:30 세례/성례: 주일 10:30 Tel: (808) 947-0282, Fax: (808) 947-6187 www.honolulu.org 2122 Mokuauia Pl., Honolulu, HI 96822</p>

남가주지역 한인교회 VBS 일제히 개최

6월5일 글로발선교교회 시작 8월 선한목자장로교회까지

남가주지역 각 교회의 여름성경 학교가 6월 5일 글로발선교교회(김지성 목사)를 시작으로 8월 2일 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 목사) 영아부 VBS까지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VBS의 주제는 'Sky: Where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The King is Coming', 'Trust God', 'Jesus Wonderland' 등이며 사진등록 시 할인혜택을 주는 교회도 있다.

다음은 남가주교회들의 VBS 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제2회 성로 '사모 블레싱 나잇' 성로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사모 블레싱 나잇'(Blessing Night)을 지난 31일 저녁 7시 플라톤 소재 하워드존슨 호텔에서 열었다.

남편의 목회를 돕고 성도를 돌아보며 사역현장에서 헌신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모든 서빙을 남편목사들이 맡아 섬김 아름다운 밤이었다.

1부 예배, 2부 식사, 3부 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사모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원교회들의 후원으로 푸짐한 상품도 전했다.

윤덕근 목사 사회, 민경엽 목사 기도, 엄영민 목사 설교, 신종은 목사 축사, 박용덕 목사 축도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엄영민 목사는 말씀을 전하며 "저희 목사들이 힘을 합해 사모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고마움을 표하고자 준비했다. 잠시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영훈 장로가 조크(Joke)타임을 가졌으며 송규식 목사가 레크리에이션 진행을 맡았다.

OC사모회는 매달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내담반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며 둘째 주 월요일을 제외한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사모 성경공부가 진행된다.

(이성자 기자)

교회	일시	문의
글로발선교교회(김지성 목사)	6/5(화)-9(토)	(909)396-4441
남가주웨슬리교회(박혜성 목사)	6/12(화)-7/28(목)	(909)397-5737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	6/13(수)-15(금)	(909)622-2324
동부사랑의교회(박승규 목사)	6/13(수)-16(토)	(714)232-5525 (714)801-9191
토렌스조은교회(김바울 목사)	6/18(월)-21(목)	(310)370-5500
안디옥장로교회(지윤성 목사)	6/18(월)-22(금)	(323)919-9158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	6/19(화)-22(금)	(714)521-0991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요 목사)	Pre K-3학년:6/20(수)-22(금) 4-6학년:6/20(수)-23(토)	(803)920-5919 (951)454-2188 (562)745-5688
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 목사)	아동부:6/20(수)-23(토) 유치부:7/12(목)-14(토) 영아부:8/2(목)-4(토)	(626)965-3443
나성교회(정동석 목사)	6/21(목)-23(토)	(562)690-7979
다시아교회(고현종 목사)	6/21(목)-23(토)	(562)217-9196 (323)369-8733
웨스트힐장로교회(김인식 목사)	6/21(목)-23(토)	(818)884-2391
충현선교교회(민종기 목사)	6/21(목)-23(토)	(818)549-9191
LA온누리교회(이정영 목사)	6/21(목)-23(토)	(213)382-5658
유니온교회(문병용 목사)	유치부:6/21(목)-24(주) 초등부:6/28(목)-7/1(주)	(626)858-8300
사우스메이사랑교회(고동화 목사)	6/22(금)-23(토)	(714)615-7622
나성한인교회(김성민 목사)	6/22(금)-24(주)	(323)221-0345
LA연합감리교회(김세환 목사)	6/22(금)-24(주)	(310)645-3698, 3699
ANC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	6/23(토)-28(목)	(818)834-7000
사랑의빛선교교회(최혁 목사)	영유아부-유치유년부: 6/25(화)-27(수) 초등부:7/2(월)-5(목)	(626)744-9191
토렌스제일장로교회	6/25(월)-28(목)	(310)618-2222
오렌지한인교회(김윤진 목사)	6/25(월)-29(목)	(714)871-8320
파사데나장로교회(성현경 목사)	6/25(월)-29(토)	(626)795-6252
베델한인교회(손인식 목사)	6/26(화)-29(금)	(949)689-8841
생수의강선교교회(안동주 목사)	6/26(화)-29(금)	(562)653-0178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 목사)	유아-1학년:6/26(화)-29(금) 2학년-6학년:7/27(금)-29(주)	(818)832-6628
하나교회(박종기 목사)	6/26(화)-29(금)	(714)232-8888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엄영민 목사)	6/26(화)-30(토)	(714)891-2029
남가주사랑의교회	6/27(수)-29(금)	(714)351-4464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	유년부:6/27(수)-30(토) 유치부:6/28(목)-30(토)	(213)905-9094 (213)210-1434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6/27(수)-30(토)	(213)749-4500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	6/27(수)-30(토)	(213)700-4579
하나로커뮤니티교회(양성필 목사)	6/27(수)-30(토)	(626)912-6600
홀리던장로교회(노진걸 목사)	6/27(수)-30(토)	(714)446-9010, 9011
나성남포교회(한성운 목사)	6/28(목)-30(토)	(310)327-8778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6/28(목)-30(토)	(562)315-3056
나성열린교회(박현성 목사)	7/5(목)-7(토)	(818)205-8959
엘바인온누리교회(권혁민 목사)	7/11(수)-14(토)	(949)261-9100

'한국교회 회복과 교단 발전' 간구

예장합동 총회설립 100주년기념 해외선교대회 성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 해외선교대회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플라톤 소재 하워드 존슨 호텔과 열린문교회(담임 박현성 목사)에서 개최됐다. 본 대회는 미주를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총신출신 목회자와 동문들 그리고 GMS 소속 선교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9일 오후 6시 리셉션을 갖고 막을 올렸다.

하귀호 목사(공동대회장)와 박현성 목사(공동대회장) 환영사, 여상일 목사(GMS선교사회 증경회장) 기도, 김미선 교수 축가에 이어 이기창 목사(총회장)와 장영춘 목사(KAPC 증경총회장)의 기념사, 문성록 목사(KAPC 증경총회장), 공재남 목사(KAPC 총무),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사장)가 축사했다. 이어 이기창 총회장은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와 메릴리 피어스(웰드비전설립자 딸 피어스 딸), PCA, RCA, OPC 교단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김근수 목사(미주총신대 총장)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둘째 날 강연의 △총회의 은혜와 빛으로 100년/박시경 교수 △미주한인교회 역사 및 총회와 협력방안/이용철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해의한인교회 선교보고/신윤섭 목사(러시아한인장로교회) △조선선교 100년을 말한다/양국주 목



총회 100주년 기념 해외선교대회 리셉션을 마치고 기념 촬영

사(열방을 섬기는 사람들 대표) △중국 한인교회를 통한 북방선교/신태철 목사(중국천진엘리교회) △비즈니스 선교의 어제와 오늘/김갈렘 목사(GBN 대표)의 제목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오후 6시에는 하귀호 목사 사회로 선교대회예배를 드렸다.

본 선교대회예배는 기도 김권중 장로, 성경봉독 이성택 목사, 설교 김자연 목사, 특별찬양과 선교보고, 합심기도에 이어 김윤배 목사(전 총신재단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 목사는 '사람은 은혜로 산다'(시57:1-11) 제목으로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결정하며 살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의탁해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나는

가가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영혼이 주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목회자, 선교사, 성도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남태섭 목사(총신운영 이사장)의 인도 아래 교단과 총회, 한국과 미주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 나라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한국교회의 회복과 교단의 발전을 간구했다.

총회 100주년을 맞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올해 여러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에는 사담동총신대 안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설립할 예정이며 10월 31일 - 11월 6일 기념전시회와 백년사, 세계개혁교회대회와 백서인명록 등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성자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 제3대 담임에 노창수 목사

3일 공동의회에서 94.5% 찬성언어 최종확정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지난 3일 3일 공동의회에서 노창수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를 총 투표자의 94.5%의 찬성표를 얻어 최종 확정했다.

PCA교단법에 의하면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는 등록된 세례교인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이 확정된다.

이런 주일 1-4부, 청년부, 대학부 및 고등부 예배시간에 열린 공동의회는 본 교회 세례 등록교인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노창수 목사의 청빙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노 목사는 3대 담임으로 가결됐다. 노 목사는 이미 남가주사랑의교회의 공동의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31일자로 시

무하던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난 노목사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으며 오렌지카운티 바이올라 대학교와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했다. 1987년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했으며 동양선교교회와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거쳐 2003년 9월부터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박준호 기자)

노형건 음악인생 40주년기념 콘서트 성황

미주성시화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까지

글로벌메시야미션 후원을 위한 노형건 음악인생 40주년 기념 콘서트 'Gospel Talk 2012'가 지난 2일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글로벌메시야미션이 주최하고 글로벌메시야 여성합창단, 오페라 CA소년소녀합창단, 크리스찬타임즈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서 노형건 선교사는 오페라리아 '피가로의 결혼' 중 'Non Piu Andrai'를 불렀으며 부인 노성혜 씨와 '즐거워 나의 집을 듀엣으로 불렀다. 또 노성혜 씨와 오페라 켈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단, 자레찬양사역자, 마가렛리, 글로벌메시야여

성합창단이 찬조출연해 합창과 독창하는 순서도 있었다.

한편 이날 미주성시화운동본부에서 노형건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으며 송정명 목사(글로벌메시야미션 대표)가 축사를 했으며, 글로벌메시야미션사에게 단체에게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후원금을 받은 단체는 LA메시야여성합창단, 사우스메시야여성합창단, 오렌지카운티메시야여성합창단, 오페라켄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단, 글로벌메시야시애틀리아, 크리스찬타임즈, 북가주메시야합창단 등이다.

(박준호 기자)



사모들을 위한 Blessing Night을 진행하기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모들



글로벌 메시야 미션 후원을 위한 노형건 음악인생 40주년 콘서트에서 노형건 선교사가 글로벌 메시야 여성합창단과 함께 합창하고 있다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뉴욕셋째마리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6:30 세계기도회: 오전 8:30 세계기도회: 오후 8:00	뉴욕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후 8:45	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백현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후 8:45	뉴욕새사랑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전 8:30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전 8:30 세계기도회: 오후 8:30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후 8:45	뉴욕주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후 8:00
뉴욕호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후 8:45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후 8:45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후 8:45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후 8:45	메디니교회 담임목사: 장동관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후 8:30	어린이교회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후 8:00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재철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후 8:0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근 주일예배: 오전 12:30 주일학교: 오후 6:30 수요예배: 오후 6:30 세계기도회: 오후 8:0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예배: 오전 12:0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현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핀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2:00	핀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한미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재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교회들 찾습니다 L.A.: Tel: 323-985-0000 N.Y.: Tel: 718-986-4000 Fax: 718-986-0074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30 세계기도회: 오후 8:45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민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희상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현근 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6:30 글로벌: 오후 8:00	

동부교계 게시판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총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총회가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뉴저지 트랜톤장로교회(담임 황의춘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자격은 각 지역 교회협의회 회장 및 중경회장, 각 교단장 및 중경회장이며 등록비는 일인당 100달러. 등록마감은 7월 6일이다. 등록자에 한해 대의원권이 부여된다.

▲문의: (609)298-2461, 510-9800

새생명선교회 후원음악회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가 매년 주최하는 제6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오는 28일(목) 저녁 7시30분 플러싱 타운 홀에서 열린다. 출연은 뉴욕미션오케스트라가 맡는다. 현재 40여명의 회원들이 암환자 모임인 동 선교회는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건강 및 식생활 세미나 및 친교를 나누고 있다. 티켓은 20달러.

▲문의: (718)460-5506 (646)737-6728

PGM 중장기 선교사 훈련생 모집

PGM(세계전문인선교회) 중장기 전문인 선교사 훈련이 7월 9일(월)부터 21일(토)까지 멕시코 칸쿤 세광국제선교센터에서 열린다. 대상은 장기 선교사 후보생, 비거주 선교사 후보생, 선교사로 재훈련을 원하는 경우이며 강사는 양준길 목사, 정인수 목사, 호성기 목사 외 미주한인교회 지도자와 김종관 선교사 이규중 선교사 조길순 선교사 외 장기 선교사이다.

▲문의: (610)397-0484 이메일 admin@pgmusa.org

"생명의 성령의 법" 집중 세미나

제 10차 미주지역 목회자 및 사모 초청 "생명의 성령의 법" 집중 세미나가 6월 4-5일, 7-8일, 11-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저지 주예수사라교회 (담임 강유남 목사) 에서 열린다.

▲문의: (551)655-4224

단기선교봉사 및 NGO리더십캠프 참가자 모집

평화나눔공동체(대표 최상진 목사)가 미전역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2012 여름 단기선교봉사 및 유엔 NGO리더십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6월 18일부터 워싱턴시 평화나눔공동체센터에서 열리는 여름캠프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씩 진행된다.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현장 노숙자 봉사활동, 노숙자체험, 인종화합세미나 및 워크숍, 유엔 NGO 국제리더십 캠프인까지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된다. 참가 학생들은 총 100시간의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문의: (571)259-4937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예장(합동)해외총회 새 회장 엄기환 목사

제34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해외총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뉴저지 주예수사라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새 임원을 선출했다. △총회장: 엄기환 목사 △부총회장: 윤성원 목사 △서기: 강유남 목사 △총무: 안기정 목사 △부서기: 홍성표 목사 △협동총무: 정대영 목사 △회의록서기: 한상훈 목사 △부회록서기: 유영채 목사 △회계: 김영렬 목사 △부회계: 김성재 장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 43:19)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 개회 예배 설교는 "두려워 말라 형통하리

로다"(수1:1-9)라는 제목으로 정인수 목사가 맡았다. 이어 윤성원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 후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이날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교단이 인준한 신학교의 이름을 Los Angeles 총신대학교로 개명 유지 존속키로 한다. 단 학교 운영에 관한 일체사항은 윤성원 목사 외 임원회에 일임 ▲동성결혼 절대반대 ▲2013년 부산 WCC 총회 결사반대 본국 총회설립 100주년기념 해외선교대회에 축하 메시지 발송. (정리: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연례 봄 선교바자회 성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가 지난 2일 연례 봄 선교바자회를 열고 총 6만 7천 9백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 각 남녀 전도회, 청년부, 영어예배부, 중고등부 등 전교인들이 참여하는 이번 선교바자회에서 모금된 기금은 예년과 같이 캄보디아 단기선교와 신학교, 카작스탄, 중국, 러시아 및 협력선교, 문서선교 등을 후원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왼쪽부터 킨슬러 선교사부부(권오덕, 신영순), 박선숙 대표이사, 이경원 장로(이사장)

"북한 고아와 장애인위한 나눔운동" 우리서로잡은손, 푸른나무와 M.O.U 체결

우리서로잡은손 국제해외선교회(I.M.O. 대표이사 박선숙)가 아더(권오덕) 킨슬러 목사와 수(신영순) 킨슬러 선교사부부(PCUSA파송 한국 선교사, 2011년 은퇴)가 운영하는 '푸른나무'와 손잡고 북한 장애인과 어린이 사역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두 단체 대표들은 지난 3일 저녁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I.M.O 나눔운동 및 북한선교보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욕에서 1990년부터 장애인 사역을 해온 박선숙 대표는 "I.M.O가 국제장애인선교와 국제해외선교, 국제미션TV 등 사역을 확장하고, 한편으로 오랫동안 해온 중국선교의 결실이 이렇게 맺어지고 있다"고 감격하며 "북한 고아원 곳곳에 생필품과 식량지원을 통해 영양 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발육이 부진한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 킨슬러 사모는 "정치와 이념, 사상을 떠나, 같은 민족으로서 고통 받는 우리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북한고아

및 장애인들과 1대1 결연과 고아원 및 장애인시설 사역을 하고 있는 푸른나무 재단에 대해 설명했다. 수 킨슬러 사모는 "80년대 중반부터 처소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순회 신학교육을 시작하면서 민족선교의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다"며 "남과 북의 장애인들이 수화와 점자가 다르다. 장애인들도 통일의 대열에 함께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푸른나무는 킨슬러 선교사부부가 은퇴 후 설립한 단체로, 북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북한내 공우유방공장의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아원, 탁아소, 유치원, 애육원, 고아원, 소학교의 북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영양증진, 생필품 보급, 교육환경 개선 등에 힘쓰고 있다. 한편 이날 생명의 양식 나눔운동과 킨슬러부부 북한선교보고는 1부 예배, 2부 선교보고 & 중보기도, 3부 취입식 & 수상식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박선숙 대표이사 사회로 기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해외총회를 마치고 총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다. 선교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718)353-3791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www.wohtusa.org (유원정 기자)

KCBN 공개모금 방송 13,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독교방송 KCBN(사장대행 문석진 목사)이 6월 13일(수)과 14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규방송 시간을 통해 공개모금 방송을 실시한다. 특히 KCBN의 공개모금방송 중에는 크리스천 기업을 방문하는 방송프로그램인 업소탐방 등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목회자 등이 방송에 출연해 공동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석진 사장대행은 뉴욕지역의 유일한 기독교라디오방송인 KCBN의 노후 된 컴퓨터 등 기기와 오디오 장비 등을 교체해야 할 상황이라며 교회와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방송은 인터넷(www.KCBN.us)과 스마트폰, KCBN 전용라디오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공개모금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718)463-1800, 1801(사무실 718-463-1700, 1701/130-30 31st Ave 8th Fl. Flushing, NY 11354. (Payable to KCBN)로 문의하면 되며 모든 후원금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KCBN)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모임 겸 आयु회에 참석한 회원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모임 겸 आयु회

뉴욕에 있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황영진 목사)가 지난 31일 알라폰드 파크에서 월례모임 겸 आयु회를 가졌다. 회장 황영진 목사는 △8월초 텔러트 김정화 한국기아대책 홍보대사의 방미일정에 맞춰 후원집회를 가지며 △둘째 주에 임원들이 콜롬비아선교센터를 방문하며 셋째 주에는 페루에 사랑의 집짓기를 위한 선교팀을 파송하게 된다고 일정을 밝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이때까지 홍보지 '오병이어' 출판을 위한 원고모집을 광고하기도 했다. 또 김종택 이사장이 적구 앞장서 이사영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날 본 기구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의 발전과 회원들의 열성적인 참여를 위하여 △아동후원 배가운동 △세금공제등록허가

빨리 나오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잘 이뤄지도록 △이사회외 활성화화를 위해 등을 기도제목으로 내렸다. 이날 경건회는 박진하 사무총장 사회로 기도 이상열 목사, 말씀 김영환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환 목사는 "감사는 복이다"(출16: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감사를 잊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겨 불행해진다.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비결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며 "감사를 회복하는 길은 먼저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하며 가정, 직장, 건강, 국가 등에 대한 감사를 생활화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모임은 25일(월) 오전 11시 뉴저지에서 모이게 된다. (유원정 기자)

www.sbm.or.kr

크리스천이 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총재 황 의 영 목사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영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영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명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 THE HEADQUARTERS OF SON BA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자랑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경제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수 있으며 미주내 동북권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뉴욕코리안뉴스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적 등대 주일은입니다

맨해튼: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6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9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힐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LA 지역 신학대학교 일제히 졸업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제32회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월드미션 졸업식에서 졸업자에게 학위를 전달하고 있다



미주성결대학교 제 10회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학위증서 수여, 시상으로 이어졌으며 이상명 총장이 격려사를 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교역학석사(M.Div)에 강상길 외 30명이 학사(B.Th)에 권상길 외 8명, 그리고 AST(Advanced Study for Theology)에 박구 목사 외 1명 등 총 42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월드미션대학교 제21회 송정명 총장 취임

월드미션대학교(이하 WMU)는 2일 오후 2시 총장 이취임식을 갖고 송정명 박사가 제2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임성진 부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이취임식은 석재운 목사가 기도를 이금희 교수가 성경봉독, 김세운 박사(풀러신학교)가 '총성된 종(고전4: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윤성환 WMU 이사장이 공로사를 했으며 임동선 이임총장과 정봉모 이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어서 임동선 이임총장이 송정명 취임총장과 학교에게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윤성환 이사장이 취임 선포를 했다. 그리고 임승표 부이사장이 송정명 총장에게 취임패를 증정했으며 임동선 이임총장과 송정명 취임총장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 담임)가 축사를, 임동선 총장과 송정명 총장이 담사를 했으며 고가제장 후 허경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취임한 송정명 WMU 총장은 성결대학교 신학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상담심리)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학위(D. Min)를 취득했다. 송 목사는 월드미션대학교와 아주사피터대학 교 객원교수를 거쳐, 현재 미주성서화 운동본부 LA대표회장, 미주한인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한편 이취임식에 앞서 2012년도 학위수여식을 오후 1시 본교강당에서 성황리에 거행했다. 임성진 부총

장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학위수여식은 조석환 박사가 기도를 이영대 선교사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 총장훈화, 졸업생 감사, 학사보고, 학위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총 51명의 학우들이 박사과 석사 그리고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날 학위수여를 받은 자는 △명예선교학박사 이영대 △M.Div 김명환 외 18명 △MAT 김상욱의 3명 △MAM 김성은 외 4명 △BABS 고돈범선 외 18명 △BAC 김정은 외 2명 △BAM 김영빈 등이다.

미주성결대학교 제10회 총 10명 졸업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는 2일 오전 11시에 미주성결대학교 채플에서 제10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였다.

기획처장 황의정 박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 최대영 장로의 기도, 학생처장 최재성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김광렬 목사는 '초대교회가 전한 원초적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예배 후 2부 학위수여식은 교무처장 윤석길 박사의 인도로 시작, 학사보고, 학위수여, 시상, 류종길 총장의 훈화와 파송 기도 후 미주성결교회 차광일 부총회장의 축사, 이정근 명예총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담사는 이철호, 재학생 일동의 특송순서도 있었다.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신학사: 이한욱, 정옥경, 신사론 △목회학석사: 이은우, 이경애, 김병의, 조순정, 김종관, 이철호, 위金斯 종심 △총회장상: 조순정 △이사장상: 이은우 △총장상: 이철호

한편 이번 학위 수여식 중 특별순서로 학교 기초를 다지는 데 공헌을 한 초대 이사장 고남철 목사에게 공로패와 함께 기념반지를 전하는 시간이 있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이필찬 교수 요한계시록 특강

Churchleader.co.kr지역이 주최하고 APU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가 후원하는 이필찬 교수의 요한계시록 특강 '이단에게 빼앗겨버린 요한계시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목회자, 신학생 대상은 6월 18일(월)과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솜교회(담임 이근환 목사)에서, 평신도 대상은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저녁 7시30분 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에서 갖는다. 회비는 목회자 신학생은 60달러(교재비 및 식사비), 평신도는 20달러(교재비)이며 선착순 50명에 한해 받는다.

▲문의: (469)223-6811, (562)405-1988

베데스다대 음대 '두 제자' 공연

베데스다대학교 음악대학(학과장 에스터 조) 뮤지컬 팀이 공연하는 '두 제자'가 오는 15일(금) 저녁 7시 본교 그레이스 홀에서 열린다. 소규모의 출연진과 소규모의 라이브 앙상블 반주로 구성됐지만 메시지가 있는 작품으로 송규식 목사가 연출을 맡았다.

▲문의: (714)683-1210



설립7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해 부흥사경회 및 권사임직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산호세주사랑교회 설립7주년 기념행사

설립7주년을 맞는 산호세주사랑교회(담임 우동은 목사)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부흥사경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경회는 염종서 목사(의성부 성실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성경적 정치의 삶'을 주제로 말씀을 나

누었다. 한편 주일 오후에는 여섯 명의 권사(김인순, 김정미, 김영희, 박정환, 서문자, 송순례)를 임직하는 예식이 거행됐다.

(기사제공: 산호세주사랑교회)

나성소망교회 설립5주년기념 및 임직예배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울 목사) 설립 5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갈릴리 신학대학 강당에서 개최됐다. 150여명의 축하객과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임직예배는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가 '그리스도인'(행 11:24-2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백철 갈릴리신학대학 교수, 조명철 목사(거룩성회복 운동 본부장), 바다윗 목사(생명전의

화 대표), 정준용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 이시근 목사(아가페신학대학 총장) 등이 순서를 맡아 말씀과 축사 권면 등을 했다. 이날 임직식은 장로장립 2명(윤석관 장로, 이현기 장로)과 권사취임(최복희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장립 7명(이정원, 오영동, 장세훈, 정광훈, 최종민, 조원영, 김장률) 등 총 10명의 임직예식을 가졌다.

(기사제공: 나성소망교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제32회 총 42명 졸업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제32회 학위수여식이 2일 오전 10시 홀리턴장로교회(담임 노진길 목사)에서 열렸다.

본교 학생처장 박종기 박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손병

렬 목사(KPCA 가중노회장)가 기도를, 장문현 목사(서남노회장)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이병진 학우가 특송을 했다. 이어 강대은 총회장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창 41:37-4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이사장 김인식 목사가 축도 했다.

이어 진행된 2부 학위수여식은

남가주든든교회 설립 11주년기념 부흥집회

남가주든든교회(담임 김현인 목사)는 설립 11주년을 맞아 6월 1일부터 3일까지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이준호 목사(GMP개혁교회 미주대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린 부흥집회는 성경에 펼쳐진 선교의 파노라마를 온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말씀집회로 진행됐다.

강사 이목사는 자신의 저서 '구약선교도표'를 교재로 주일예배를 제외하고 10시간에 걸쳐 구약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강의의 리어갔다.

"성경의 수장은 주제가 핵심은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지' 위에 구성되고 조직되었다"고 전제하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일관성 있는 선교의지와 계획의 토대위에서 구약 성경을 볼 때 비로소 성경을 가장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만 구약을 또 반으로 나누면 창세기 1장-11, 창세기 12장-말라기까지로 나눈다. 전반전에는 천지창조와 인류의 역사를 기록했고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며 구약 전체의 흐름을 설명했다.

이준호 목사의 저서 '선교구약도표'는 '선교적 시각에서 총 정리하는 구약성경 개관 꿰뚫어 보기', '그 동안 숨겨져 드러나지 않았던 구약 성경의 비밀' 등의 부제를 달고 있어 이 한권을 통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비밀 통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메일 gmpfom@gmail.com (이성자 기자)



말씀세미나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준호 목사(왼내)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풀려져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 2300 Ansl Lumens \$699
- 2600 Ansl Lumens \$799
- 3000 Ansl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음악

새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진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서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용향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E7 미가엘 반주기

- 선명하고 밝은 LCD화면
- 원형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정용 스탠드
- USB 호스트 기능
- 오가드 사용
- 타시스크린 방식
- 정사각 연주대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엘리엇수정구사

에하드수정구사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할 땐 2년간의 보증과 1년간의 수리비 무료입니다.

최저가격 보장

성구입에 보조 50% (국특)

Good Design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수교장(총회) 지정납품업체 선정

타입의 자유로운 배치(90도 회전)은 17인치 두께에 10인치 너비로 이 외에도 다양한 목적용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i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투고

정성진 목사
미래교회포럼대표

찬송가발행,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교회의 연합기관 중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성경을 제작 배포하는 성서공회와 또 다른 하나는 찬송가를 제작 배포하는 찬송가공회이다. 성경과 찬송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찬송가공회'

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의 시작은 '찬송가공회'가 법인화 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많은 교단들이 '찬송가공회'가 법인화 되는 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회복, 혹은 '투명한 경영'이라는 목표아래 '찬송가공회' 법인화를 강행했다. 그리고 지

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위 21세기 찬송가를 제작하고 사용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찬송가공회'의 법인화를 반대하는 여러 교단들, 소위 '비법인 찬송가공회'측에서는 공회와 법인화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법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21세기 찬송가는 많은 저작권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고 또 심지어 21세기 찬송가를 가리켜서 "누더기와 같다"고 혹평하면서 새로운 찬송가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표준찬송가라는 이름아래 오는 9월에 시

제품이 나온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결국 찬송가 문제는 법원의 본안 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법원의 손에 달려있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현상을 보는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의아함과 더불어 참담함을 떨쳐버릴 수 없다. 양측 기관의 관계자들은 한국교회와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남기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권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주도권 다툼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찬송가가 두 개로 나누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하나의 성경, 하나의 찬송가는 한국교회의 연합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였다.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교회나 교단마다 혼란이 야기되고, 개교회와 성도들은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를 교체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찬송가를 발행한다는 비법인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특정인들을 위한 명분과 이권에 의한 것이라면 한국교회

의 철저한 의면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으면 팔릴 것이란 착각을 버려야 한다. 그러기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법인측이나 비법인측이나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대화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한국교회의 유익이 되며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화하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 찬송가를 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두에게 임하여 대화하고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게 되기를 한국교회는 기대하고 있다.

“종자연 실제 몰랐다” ...인권위, 실수 첫 인정

관련법 제정후 미션스쿨내 신앙교육 적극 차단 계획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을 수주한 의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인권위는 연구용역 선정이전에 종자연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종자연의 실제조차 파악하지 못한 인권위는 “(연구용역 선정 과정을) 훨씬 치밀하게 했어야 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본지가 4일 입수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종자연은 이번 인권위 연구용역 결과를 지렛대 삼아 관련법 제정 후 미션스쿨 내 신앙교육을 적극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불교재단연대 부설 단체인 종자연은 강의석씨가 대광고와 서울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도맡다시피 해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미션스쿨 내 예배가 종교 강요로 위법'이라는 판결을 얻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4일 “종교시설

에 채용된 직원의 종교 강요, 종립 학교 내 예배강요, 정부 업무수행 과정 중 특정종교인에 대한 우대 등을 종자연에 연구과제로 주려 했으나 6개월이라는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종립학교 조사만 맡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자연 연구용역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이 단체는 앞으로 한국교회 가 설립·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조건, 종교 예배 참여 및 교과목 수강 강요를 조사하게 된다. 또 무종교 또는 타 종교 학생을 위한 대체과목 미운영 등으로 양심의 자유 침해 및 종교에 따른 차별 발생, 직원 채용, 특정 종교인 우대·배제 행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종자연이 만들어낸 것은 대광고 강의석씨 사태 때 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는 종자연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와 헌법학 교수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를 데리

고 공청회를 가지며 법제화나 기구 설립, 의식개혁 등의 후속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권위는 종자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확인 못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종자연 홈페이지에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이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다 사실 확인 후엔 “내가 확인할 땐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다. 실무자가 기독교의 종교편향 사례로 도배를 해놓은 종자연 홈페이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광고가 소속된 예장 통합에서 부총회장을 맡고 있는 손달의 목사(서울 서문교회)도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정부기관이 종교편향성을 갖고 있는 단체와 일을 한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종교편향은 물론 헌법정신 위배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교단 산하기관은 물론 타 교단과 의논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어떻게 특정 종교인으로 구성된 기독교 공격에 집중했던 단체에 종교편향 연구를 맡길 수 있나. 인권위 연구용역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을 지낸 박종순(서울 신신교회) 원로목사는 “기독교 학교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이 종자연과 같은 친 불교단체에 의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선 한기총과 NCCK가 반드시 연합편지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광고가 소속된 예장 통합에서 부총회장을 맡고 있는 손달의 목사(서울 서문교회)도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정부기관이 종교편향성을 갖고 있는 단체와 일을 한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종교편향은 물론 헌법정신 위배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교단 산하기관은 물론 타 교단과 의논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어떻게 특정 종교인으로 구성된 기독교 공격에 집중했던 단체에 종교편향 연구를 맡길 수 있나. 인권위 연구용역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신천지는 종교아닌 반(反) 사회적 집단”

신천지대책기독교연대 기자회견 갖고 실상 공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등 10여개 단체가 연합한 신천지대책한국기독교연대는 3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독교 사칭, 사이비종교 신천지의 사회·종교적 폐단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의 실상을 공개했다. 기독교연대는 공개한 자료에서 “신천지 집단은 기독교의 한 종파라 사칭하며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을 거짓된 방법으로 포섭해 종말론적 교리를 주입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출과 학업포기, 직장포기, 부부 이혼, 가정 내 자살과 살인 등을 유발시켜 가정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연대에 따르면 신천지는 30일 이상 교육을 할 경우에 학원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20년간 비밀리에 위장신학교 등 400여 곳의 정신개조용 교육시설을 운영했

다. 또 26년간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수백 곳의 차명 부동산은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예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신천지 유관단체인 새만남이 신천지의 교의를 내포하여 제작한 손도장 태극기를 국립 현충원에 보관해 국기법을 위반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가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독교연대는 신천지와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도 공개했다. 기독교연대는 “신천지는 2002년과 2007년에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으며 모 정당에 1만여명의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했고,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구리상담소장과 안희환 기독교시공탱크 대표, 임용근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장, 임승욱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총무가 나와 신천지 피해 사례와 포교전략,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신 소장은 내년 중반 신천지 신도는 14만4000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탈자도 많아 신천지 측의 신도 수 발표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최근 신천지가 가톨릭 포교에 나서 가톨릭 측에서 신천지 경계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신천지 본부가 소재한 경기도 과천 지역으로 교인들을 이주시켜 관할시장을 바꾸려고 하는 등 '과천산 옮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안 목사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목회자나 기독교 기관에 대한 비방 동영상에 신천지가 만든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수가 582건으로 전체 동영상의 74.7%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목회자 비방 동영상상위 10개 중 신천지 신도는 319명으로 확인 또는 추정돼 전체 582건 중 68.8%를 기록했다.

감리교 김기택 임시감독회장 첫 공식업무 시작

“정상화 로드맵은 2-3일내 발표...10월 총회준비에 총력”

[CBS]법원이 감리교 정상화를 이끌 인물로 김기택 서울연회 전 감독을 선임하면서 계파간 임시감독회장 후보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감리교단 임시감독회장으로 선임된 김기택 감독이 오늘(30일) 직원기도회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첫 공식일정으로 직원기도회에 참석한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감리교 정상화의 사명을 위해서는 학연이나 파벌, 또는 어느 계파나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임시감독회장은 그러나 정상화 로드맵을 내놓는 아직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회장은 기도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3일 후에 정상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10월 총회와 감독회장 선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 감독회장 제도 개혁 등을 들어 일에서 제기하고 있는 임명회 개칭 요구에 대해서는 10월 총회에서 총의를 물어 결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교단법에는 10월 총회외의 임시입법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에 대한 입장이 밝혔다. 김 임시감독회장은 “10월 총회를 차질

없이 치루는 것이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5개월 동안 감리교 현안 문제 처리보다는 총회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현직 연회 감독들 이외 다른 계파간 입장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지 주목된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대담 목회사신을 통해 교단 정상화 추진 사항을 모든 감리교인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0월 총회를 위해서는 9월까지 감독회장을 선출해야 하고, 3개월 전인, 6월까지 선거인단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이 감리교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시켜라”

한기총 등 법무부에 청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의기 6·25국민대회는 30일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한기총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부정하려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어 통합진보당의 해산청원서를 법무부에 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세환 재향군인회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달 24일 오후 4시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대한민국의기 6·25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과 해산청원서를 통해

“헌법 8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 청구를 할 것을 청원한다”고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에 촉구했다. 단체는 또 “중복 세력 그 핵심 정예들이 지난 4·11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 진입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세력을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 체제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주사파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복합을 이롭게 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이들의 국회 제명을 위한 운동과 촛불문화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예배(영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흥기도, 집회기도, 묵회기도, 헌금기도, 위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예배(영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위한 예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전야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영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포인트 중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자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T)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 (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이 드리는 혜택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식(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화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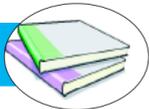
한국교회정보센터
Korea Church Data Center

홈페이지 - www.kcdc.net
이 메 일 - 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새책소개



“이름값 하는 교회”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



크리스천위클리(전 크리스천뉴스위크) 발행인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가 '이름값 하는 교회'를 출간했다.

저자는 지난 180년 동안 크리스천위클리를 통해 게재한 칼럼 '쓴 소리 단 소리'를 모아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쓴 소리 단 소리'는 지난 10년 동안 교계와 한인사회를 직시하며 느낀 점들을 예리한 필체로 적어,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쓰디쓴 말로 지적하고 격려하며 보다 발전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 칼럼이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쓴 소리 단 소리를 적으면서 가끔은 쓴 소리의 소재가 된 분들이나 교회 앞에 죄송할 때가 많았다.

금으로 선교센터를 짓는다고? 도요타의 굴욕에서 얻은 교훈, 해외동포참정권, 결국 '그들만의 축제?' 외 제 3부: '비 본질에는 관용을'-정치 바이러스로 열병 앓는 대한민국, 보톡스 보다 백발, 위장전입과 위풍당당, 내가 만난 하용주 목사님 등으로 각 부마다 20여 편의 글로 구성됐다.

박재호목사(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는 추천의 글을 통해 '조명환 목사는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모범적이고 충직한 언론인'이라고 칭하며 "저자가 평소 애독하고 삶속에 실천해왔던 깊은 지혜와 영성이 묻어나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삶의 용기와 보람

10년간 교계와 한인사회 직시하며 느낀 점

이렇게 책으로 엮어지니 더욱 그렇다. 그러나 신문지상에 쓴 소리를 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져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린 것들도 있고 나의 편견과 무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픔을 안겨드린 분들도 있다. 책 머리에서 우선 그런 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적어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화된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양해를 촉구했다.

본서는 제 1부: '이름값하는 교회'-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고?, 수정교회와 뉴욕 양키스, 노벨평화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하게 외 제 2부: '골게 살아보자, 레드우드처럼'-아이티 구제

과 회의를 맞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박정찬 감독(연합감리교회 뉴욕연회주재 감독)은 "열린 마음을 전하는 그의 글은 한국교회, 한인교회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치하하며 일독 할 것을 권했다.

저자 조명환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 미국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저서로는 '미국의 8대 한인교회', '어머니, 내겐 히트곡이 없어요', '아직 큰 배는 오지 않았다' 등이 있다.

▲연락처: (213)383-2345

(이성자 기자)

선교지 편지

인도네시아

며칠 전에 1국 선교단체들과 교단 선교부들을 아우르는 선교단체 연합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희는 지난 1년 사이에 1국 17개의 미개척 미전도종족(기독교 사역자가 한 명도 없는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안에 기독교 사역자들이 새롭게 들어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5월에 39개의 미개척 미전도종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2012년 5월 현재 22개의 미개척 미전도종족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미개척 미전도종족들은 매우 열악한 사역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지난 1년 사이에 17개의 미개척 미전도종족에 새롭게 들어간 사역자들이 잘 정착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들 종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꿈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남겨져 있는 미개척 미전도종족들에게도 속히 사역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SUN족 사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차세대들을 향한 사역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저희들 사역의 주된 대상은 어른들이었습니다. 친족 중심의 SUN족 회교 공동체에서 어른들을 먼저 그리스도께 이끌고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이 함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이제 어니트 SUN족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신자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제자 훈련하는 사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두 차례씩 어린이 제자반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믿음이 좋

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보다 양질의 교육과 더불어 공동체 제자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말에는 청소년 캠프가 4박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소년기에 수련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함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캠프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주시고.

주로 가난하고 저교육층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SUN족 어른 신자들 그 믿음이 강한 편이지만 SUN족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꿈을 꿉니다. 이 SUN족 차세대 신자들 가운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와 3천5백만 SUN족 사회 가운데 임하도록 두 손 들고 기도해주시고.

저희 가족이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 어니트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볼 때 '부족한 자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좋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 온 저희지만, 선교 사역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알고 경험할 수 있는 큰 특권을 더부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올 7월부터 두 번째 안식년을 가질 예정입니다. 7월 한 달을 한국에서 보낸 이후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남은 기간을 보내고 내년 6월 초에 1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안식년 기간 중에도 이 선교사는 두 번 이상 사역을 위해 1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안식년 가운데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



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기도제목

1. 1국의 남겨진 22개 미개척 미전도종족에 기독교 사역자들이 속히 들어감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B족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주시고.

2. 저희가 속해 있는 단체 W의 1국 컨퍼런스가 6월 17-23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리더로서 잘 준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SUN족 청소년 캠프가 6월 25-2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참석하는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저희 가족이 7월부터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한국에서 가족, 파송교회, 동역자들과 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안식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잘 공급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안드레 유에스터 조이 사무엘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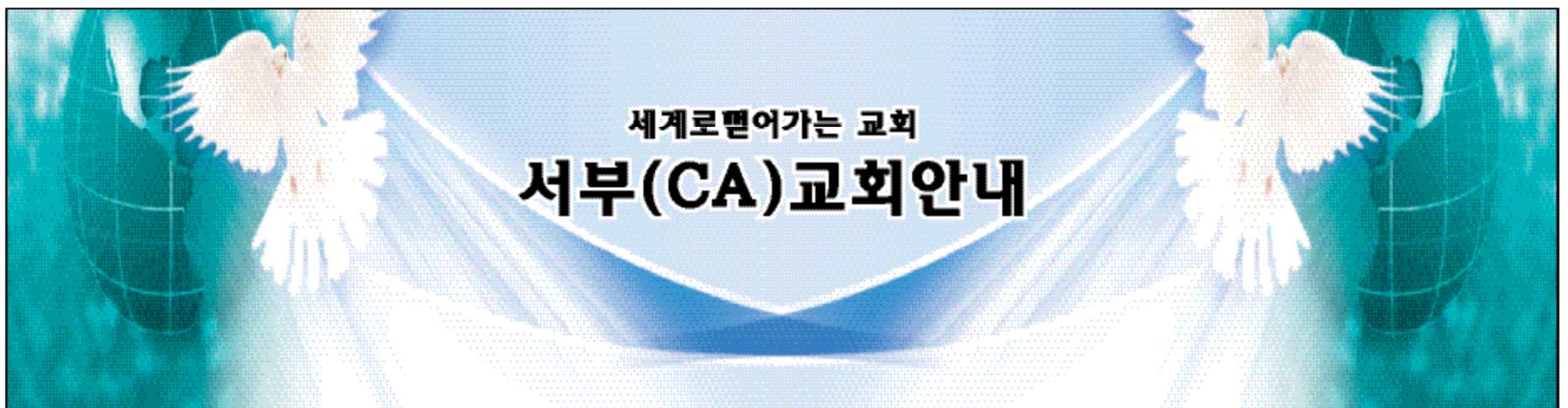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 Southern California,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해피 라이프 (5)



스스로 꿈을 발견하길 바라며

석은옥
(고강영우 박사 부인)



우리는 두 아이가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도록 했다. 우리 부부가 기독교인이니 두 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짐과 동시에 그로써 축복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대학에 보내기 전에는 나는 두 아들을 모두 Confirmation Class(미국 장로교회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추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믿고 본인의 의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서약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보냈다.

우리가 다녔던 미국 교회에서는 고등학교 9학년 즉 열다섯 살이 되면 이성적으로 또 지적 능력으로 추상적인 존재인 하나님, 예수님을 스스로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1주일 어 한 번씩 담임목사님이 신약4복음서를 가르치고 숙제를 주는 과정을 9주간 거친 후 성인예배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선서하는 예식을 치르게 했다. 그때 새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큰못으로 만든 십자가를 가죽 띠로 묶어 목에 걸어주는데, 아이들은 지금도 그것을 차와 집에 걸어두고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한편, 아이들이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려고 애썼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독서를 통해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게 하는 한편, 도서관에서 발견한 '직업참고서'(Dictionary of Occupation)라는 책도 활용했다. 그 책에는 각 직업별로 대학에서 전공해야 하는 학문, 취업한 이후의 보수, 앞으로의 전망 등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매우 상세히 적혀 있어서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맞추어 직업을 선택하는데 아주 유용했다. 그 책을 참고로 아이들의 적성이 어떤 직업과 잘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들에게도 직



고강영우 박사(가운데)와 두 아들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자신의 달란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한 생명, 한 생명이 모두 존귀한 존재이며 각자 다른 재능과 능력을 받고 태어났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더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너의 꿈이 무엇인지, 너의 적성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네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네가 가장 잘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 어디에 속해 있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그 엄마에 그 아들

두 아들이 중고등학교생일 때 당시 내가 지도하던 시카고대학생들의 여름캠프에 아이들을 매년 데리고 가 자원봉사를 하게 했다. 자기 또래의 장애아들을 직접 돌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시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행히도 아이

들은 그러한 감사뿐 아니라 엄마가 열성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에서도 감명을 느꼈던 것 같다. 진영이는 그것을 글로 쓰기도 해 그 일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를 잘 마친 진영이는 그 무렵 진석이가 다니던 동부의 명문고 필립스 아카데미에 진학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어릴 때부터 형을 잘 따랐고 늘 형을 영웅처럼 생각하는 등 진석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던 진영이었기에 고등학교 또한 필립스 아카데미로 정했다. 대신 진석이 다니는 필립스 엑서터가 아닌 필립스 앤도버로 가고 싶다고 했다. 필립스 아카데미는 뉴햄프셔의 엑서터와 보스턴의 앤도버 두 곳에 있다. 진영이는 자기 다른 전통을 가진 다른 지역에 다니는 것이 인맥을 넓히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영이는 앤도버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예상보다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웠으나 다음해부터는 잘 따라해 하버드 대학 조기입학도 허락받았다. 단 마지막 학기까지 계속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 무렵 진영이는 친구들과 이웃 양로원에 큰 텔레비전을 들여놓겠다는 사명에 폭 빠져 있었다. 그 프로젝트 추진과 후원금 모금을 위해 포스터를 만들고 준비하느라 마지막 학기 성적을 잘 관리하지 못했고 애석하게도 하버드 대학 조기입학은 취소되고 말았다. 이에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 아파한 사람은 남편이었다. 아버지의 큰 꾸지람에도 진영이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 노인들이 작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그분들은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나의 고3 시절이 떠올랐다. 서울대 사범대 진학을 위해 아버지는 나를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에 보내주셨다. 그런데 광고톱게도 그 무렵 집안형편이 조금 어려워져 나는 초등학교 가정교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천호동 감리교회 개척에 발벗고 나서 직접 벽돌을 나르는 가 하면 유년주일학교 선생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봉사를 위해 모든 열성을 바쳤다. 그리고 진영이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낙방하고 말았다.

"그 엄마에 그 아들이로구나. 피는 못 속인단더니..." 결국 진영이는 노벨상 수상자가 많기로 유명한 시카고대학에 진학해 경제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했다. 하버드대학 조기입학에 낙방한 것은 좌절할만한 일이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선교지 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마나도/미너하사(솔라웨시 섬), 꾸쌍(띠모르 섬) 지역 단기사역 팀 준비상황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Puji Tuhan!(뿌지 투한!)

빠른 세월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다면, 가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나가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는 6월 말과 7월 초, 인도네시아의 두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청년 캠프
인도네시아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마나도/미너하사(Manado/Minahasa) 지역의 교회들의 청년들을 깨우는 영적 각성 집회인 청년 캠프가 열립니다. 1981년부터 매년 열려온 올해도 1만명-1만5천명의 인원이 모여서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90%의 비율을 가진 이 지역에 잠자는 교회와 청년들을 깨워서 영방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할 행사가 되겠지요. 이 행사에 한국의

청년들이 함께 합니다. 현재 대전에서 35명의 청년들이 이 캠프에 동참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캠프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영적 센터로 부상하고 있는 꾸쌍(Kumpang) 지역의 대학생 40명이 열린 마음으로 한국어 캠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라는 매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연결할 귀한 기회죠. 무슬림과 기독교인,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섞여 있어서 이들에게 한국어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 섬에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중심인 물들이 될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사역에 주섬김이는 현재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어 전문인 K선교사로서 짧은 캠프를 통하여 한국어와 복음을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는 5명의 섬김이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주시고, 이들이 김치와 비빔밥을 먹고, 장구를 치고, 재기를 차면서 한국어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동안 주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서 높여질 것입니다.

기도제목

1. 국제선 항공권 구입에 있어서 발권과 결제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자카르타와 서울의 (주)코리아월드트래블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차질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요.
2. 팀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있어서 서로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기도해주시고요.
3. 청년 캠프 지원금 1,000달러와 한국어 캠프 주강사 선교사 항공료 900달러, 그리고 캠프를 위한 물품 지원이 잘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시고요.
4. 두 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전해져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Terima Kasih(뜨리 마까시)
이메일: soon_na@daum.net
나순규 드림

전주서문교회 설립19주년 기념예배 및 행사



119주년 기념예배

6월 3일 전주서문교회(담임 김승연 목사)가 설립 119주년을 맞아 뜻 깊은 예배와 행사를 가졌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온 레이놀즈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전주서문교회는 올해로 설립 119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와 생일 축하 잔치를 벌인 것이다.

이날 예배에서 김승연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해외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전주서문교회의 역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는 그 빛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전주서문교회! 이제는 119다"라는 제목으로 기도 119, 전도 119, 봉사 119를 통하여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교회가 되자고 선포했다.

이날 예배 시간은 생일축하 특별찬양과 주일학생들의 특송 등으로 다채롭게 드러졌고, 1-3부 예배 후에는 함께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익 커팅을 통해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교회 앞마당에는 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진행돼 지난 119년간 한

국 교회를 이끌어간 생생한 역사의 향상을 자녀들과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의미로 먹거리 한마당이 교회 마당에 꾸며져 맛있는 먹거리들로 시끌벅적했다.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생일의 기쁨을 나누었다.

전주서문교회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총칭, 호남 최초의 교회이다. 전주서문교회를 설립한 선교사들은 신학교, 예수 병원 등을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호남 지역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다가교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이 일대는 호남지역 기독교와 복음화의 성지(聖地)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매년 많은 기독교 유적 순례자들이 방문하며 기독교 역사와 믿음의 위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기사제공: 전주서문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p>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Tel: (02)325-7797, Fax: (02)325-8238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530-29</p>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2:00 지역예배: 오후 7:30 Tel: (02)118-8794-6 군포시 남부동 679-10</p>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imlan.org Tel: (02)422-0202-0203, Fax: (02)422-0279 서울시 용마루동 349-1(158-257)</p>	<p>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http://www.kimpo.org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김포시 중앙동 204-15</p>	<p>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전 7:00 시회 예배: 오전 9:00 성일교회기도회: 오후 8:00 Tel: (02)129-4411-4412, Fax: (02)129-4414 300-179 영고동 441-5, 서울 영등포구 영등동 300-179</p>	<p>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129-4411-4412, Fax: (02)129-4414 2-10-9 Shinbo Bldg 2/F, Tokyo, Japan</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9)410-6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원당동 10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영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시회기도회: 오전 8:00(매일) Tel: (02)69-677-3282, 33-348-338-3798 VIA DEI GUSTINI 33-348-338-3798, ITALY</p>	<p>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시회기도회: 오전 8:30 1100/4번지 4층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서울시 용마루동 349-1(158-257)</p>	<p>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서울시 용마루동 349-1(158-257)</p>	<p>새연교회 담임목사: 소강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시회기도회: 오전 8:00 (3층)을 위한 예배예배 대표전화: (02)118-8814-8815, 팩스: (02)118-8814 서울시 용마루동 349-1(158-257)</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시회예배: 오전 8:3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서울시 용마루동 349-1(158-257)</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명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eul.or.kr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서울시 용마루동 349-1(158-257)</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지역예배: 오전 8:30 (매일)을 위한 예배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서울시 용마루동 349-1(158-257)</p>	
<p>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수영동 140-1, (02)118-8814</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255사 자우동 255-1(158-257)</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새벽 7:0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118-257) 서울시 용마루동 349-1(158-257)</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00 시회예배: 오전 8:00(매일)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870-1 수송동 870-1(158-257)</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관용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서울 용마루동 349-1(158-257)</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서울 용마루동 349-1(158-257)</p>	<p>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서울 용마루동 349-1(158-257)</p>	
<p>안곡교회 담임목사: 서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수요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매일) 시회기도회: 오후 8:0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04)1-3011111 서울시 용마루동 349-1(158-257)</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서울시 용마루동 349-1(158-257)</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시회예배: 오후 8:3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118-257) 서울시 용마루동 349-1(158-257)</p>	<p>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관악동 118-8814-8815</p>	<p>장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서울시 용마루동 349-1(158-257)</p>	<p>정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시회기도회: 새벽 8:00 시회기도회: 새벽 8:3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307-433 용마루동 307-433(158-257)</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1:30 Tel: (02)118-8814-8815, Fax: (02)118-8814 서울시 용마루동 349-1(158-257)</p>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11)



2. 성격-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

(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두 번째 성격인 "이중문화적/이중 언어적 교육(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사역의 지향할 바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며, 그 첫 번째 가치인 그것이 우리 한인들 특히 우리 한인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있고, 그 두 번째 가치는 그것이 이후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그들이 세계 교회와 사회를 위해 크게 일하는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중문화적/이중 언어적 교육(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이 지닌 그 세 번째 가치는 오랫동안 우리 한인 교회와 사회와 가정 안에 있어 온 "세대간 격차"의 이슈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인 교회와 가정에서 세대간의 격차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왔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 체험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등 상황들이 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인 공동체 안의 세대간 격차와 그로 인한 상호 몰이해, 그로 인한 상호 갈등 및 관계 악화 등을 순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중문화적/이중 언어적 교육입니다. 한인 공동체 내에서의 세대간 격차와 그로 인해 형성되는 여러 부정적 상황들을 경감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문화/언어와 한국문화/언어 양자를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한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가지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수용하는 것을 기치로 하는 이중문화적/이중 언어적 교육은 세대간 격차 이슈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그 원동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이중문화적/이중 언어적 교육은 보다 한국적인 어른들과 보다 미국적인 자녀들의 삶의 경험들, 삶의 방식, 사고방식, 세계관, 신앙관, 대중 문화적 선호, 표현 방식 등등의 차이들을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호 몰이해로 인한 갈등, 관계 악화 "세대간 격차" 해결 실마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협력 및 하나님나라 사역의 시너지 효과

사실 동일 문화를 가지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들이라고 해도 "세대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대 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 차이가 아니라, 그 나이차이로 인한 하부문화적(sub-cultural) 차이입니다. 일례를 들어,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 간에는 사고방식, 삶의 방식, 세계관, 선호하고 즐기는 대중문화, 놀이문화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동일한 언어임에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표현 방식, 은어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특히 요즘엔 인터넷 문화가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급변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네티즌 언어들, 혹은 온라인 게임 언어들은 어른들로서는 전혀 이해 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이해가 없으므로 그들의 유머코드 또한 공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하부문화적 차이와 그 격차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과 관계 양상의 악화 등의 부정적 현상들이 있어 왔으며 현재도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동일 문화권/동일 언어권 공동체들에서도 세대간의 하부문화/언어의 차이로 상호간의 몰이해와 그로 인한 다양한 갈등의 양상들이 존재하거나 하물며 이러한 하부문화 차이를 동반하는 세대차이가 문화와 언어가 상이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상황인 한인 공동체에서는 보다 심각한 몰이해와 그로 인한 갈등

다. 더 이상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치고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교가 되어주고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단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단지 갈등 상황들이 완화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깊은 통찰을 동반한 상호간의 관계 맺기와 서로의 장점 배우기 등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다르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서로를 상관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이중문화적/이중 언어적 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한인 교회의 이중문화적/이중 언어적 교육이 서로의 다름을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역의 시너지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한인 교회의 사역의 모습들에서 종종 이러한 부분들이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염려스럽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후에 한인 교회의 후세 교육의 모델들을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대간의 격차를 이슈로 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세대간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뜻을 상고하여 이루어 드리려는 우리의 영적 의지를 피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인 교회의 이중 문화적/이중 언어적 교육적 노력들이 이를 위한 첫 걸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십자가 사랑 (마26:1-5)

주님께서 십자가수난을 네 번씩(2절)이나 거듭 예고하신 이유는 결코 십자가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 에덴동산에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를 어길 경우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창2:7). 이는 인간이 선악과언약만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언약을 어겼고 따라서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

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처럼 허무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언약을 파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로 하여금 인간을 대신해 죽게 하고 인간을 회개할 조건으로 구원얻게 하시는 새로운 구속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으며(창3:15), 십자가사건을 통해 인류구속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마26:6-16)

본문을 보면 가롯 유다는 스스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를 먼저 유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여차하면 주님을 배신할 준비가 늘 돼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주님을 따른 것은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자신도 한몫 잡아보려고 주님을 좇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세상 왕권과는 상관없는 천국 진리를 가르치시자 그때부터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했고(요12:5,6),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

죽으시리라고 가르치자 더 이상 주님께 연을 것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배신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가롯 유다의 배신은 필연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다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그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약4:8).

수 성찬의 은혜 (마26:17-30)

본문을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먹으라"고 하였고 잔을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대속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미리 준비해놓으셨듯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대속 구원의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받아서 먹고 마셔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대속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라도 그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3:22).

목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마26:31-35)

32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갈릴리는 가나안인 시몬과 가롯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의 고향이자 어부로 지내던 곳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당신께서 붙잡혀 처형당하시면 고향으로 도주해 다시 어부 일을 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되돌아간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서 그들을 위해 고기와 떡을 구워놓고(요21:1-14) 타락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들의 사명을 되살려

주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에 빠져 세상 어두운 곳에서 방황할 때도 먼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도 자식의 타락현황에 먼저 가서 기다려주시는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끌어내리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이 음부에 자리를 펼치라도 그곳에 계시서 우리를 붙들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금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마26:36-46)

39절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앞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젊은 나이의 주님이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피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결코 자기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

게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전9:27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겠다" 우리도 바울과 주님의 태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토 열기는 사단의 도구 (마26:47-56)

51절은 제자 중 한명이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제자를 베드로라고 기록했습니다(요18:10).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분노를 참지 못해 칼을 휘두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열기는 하마터면 주님의 뜻을 망칠 뻔한 우매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반항하면 죽이려고 나온 로마 군병들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골고다 언덕이 아닌 겟세마

네에서 돌아가실 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열기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훼방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베드로의 행동은 결국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목적으로 격동시킨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열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약1:20). 성도가 화를 내면 후회할 일만 새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온유한 말과 유순한 대답으로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MA Courses (석사과정)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본교 소개 및 특전

1.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W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선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8335), 574-377-2819(한국어)

E-mail: parkro@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남수 목사 (뉴저지온누리교회)

인/터/뷰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강대은 목사 (은혜의빛교회)

“지역과 세대 아우르는 총회로”



김남수 총회장 가족

지난주 총회를 마친 미주대 대표적 장로교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와 해외한인장로회(KPCA)의 신임 총회장들과 지상 인터뷰를 통해 향후 1년 간 양 총회를 진단해본다.

자들을 많이 육성하여 다음 세대에 교회의 지도자로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 안에는 2세들로 구성된 북미주노회가 일찍이 조직되었고, 올해 노회장은 백인 목사님이 맡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 기간 중 임원회가 2회 열렸는데, 임원들도 총회개회예배 설교에서 언급한 총회 방향에 대해 모두 동의 해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년 동안 계승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차기 임원 공천시 북미주노회(영어노회) 회원 중에서 총회 임원을 공천하는 것도 2세들과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 총회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목회 철학을 말씀해주시오. 저는 4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저의 집안에는 여러 분의 목사님들이 나왔습니다. 두 분 작은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고, 제가 장손인데 일찍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이 미국에서 자라 Wheaton College(B.A.,

-총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을 뽑아주시는 모든 총대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면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총회 신하 모든 목사님들과 교우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으로서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 및 비전을 소개하시나면?

역대 훌륭한 선배 총회장님들이 이루어 놓은 좋은 믿음의 전통 위에 좋은 점들을 발전 계승시

람들이 모인 곳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지키되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교단이 되는 일에 초석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타협하면 안 되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며 세상이 더불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 보수’로 가야 교단의 장래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단내의 계층, 지역을 넘어 소통의 길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있는 곳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위에 ‘열린 보수’ 지향 말씀중심의 하나님사랑 영혼사랑이 목회철학

키려고 합니다. 총회 개최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저희 총회가 이런 저런 일로 침체되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기점으로 모든 면에 확실히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 개혁주의적 신학과 신앙의 확립입니다. 우리 KAPC는 하나님 중심, 말씀중심, 교회중심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등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교단입니다. 지금은 신앙과 신학이 혼란한 시대인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중심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열린 보수’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KAPC’ 하면 좀 진부한 사

이 북미주(캐나다 포함), 남미, 하와이, 뉴질랜드, 태평양(필리핀) 등 가히 범세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적, 물적 소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 해외노회를 보살피는 일을 교단 친선상임발전위원회(위원장 장영준 목사)에서 맡아 수고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교단 친선상임발전위원회 위원은 역대 총회장님들의 모임인 바, 그동안 쌓은 많은 경험과 지혜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2세 목회자 양성에 힘을 쏟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이민은 줄어들고 2세들의 탈교회화가 심화된 가운데 있어 앞으로 이민교회의 비전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명과 실력을 갖춘 그리고 비전이 분명한 2세 사역

Westminster Seminary(M. Div), Columbia Seminary(Th. M)를 마치고 애틀랜타에서 영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작은 아버지의 목회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목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 하는 목회를 늘 마음에 두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아가페장로교회는 제가 2대 목사로 1990년 8월 첫 주에 부임하여 어언 20여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데까지 목회하려고 합니다. 매일 새벽기도회 때 성경 한 장씩을 읽고 강해하여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5번째 강론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지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며 정말 엔조이(enjoy)하고 있습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총회 발전을 위해 세워진 자리”



강대은 총회장

- 총회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묻자 “부족한 사람이 총회장의 직책을 맡게 되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말하며 총회장으로서의 비전과 총회를 소개했다.

강 목사는 “해외한인장로회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중남미, 유럽, 호주, 뉴질랜드에 19개 노회를 둔 700만 디아스포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교단이 되었다”며 “각 지역에 흩어진 노회들이 중심이 돼 그 지역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며, 아직 노회가 없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노회 설립을 추진하고 선교사들도 총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영어노회가 설립되었다”며 “지원 활성화와 목회자 연금문제 등도 실천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적으로는 교회성장과 외적으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고 지원하는 총회가 되도록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됐고 본 교회 2대 목사로 청빙된 강 목사는 16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자 “우리교회는 장로교회 전통을 이어 변화무쌍한 현대 사회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바른 교회이고 대화와 성도님들이 잘 협력하는 행복한 교회”라고 함축성있는 어휘로 표현하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 교회는 2세들을 위해 투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 EM사역자를 청빙하는 과정에

- 은혜의빛 장로교회를 16번째 섬기고 있는 강목사에게 목회 철학을 묻자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목회”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알고 감사하고 그 축복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 일을 실천 하는 것이 전도며 선교이기에 작게는 가정으로

WCC 불참·동성애 반대 등 진리전달 강조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교회 행복한 공동체로

특히 이번 총회에서 언급돼 참석한 총대들의 관심을 끌었던 WCC에 관한 소식을 묻자 “이번 총회에서 2013년 WCC 한국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대외협력위원회에서 현의를 했는데 총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 교단은 WCC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회에 회원으로 참석할 수는 없지만 세계 교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참관하는 것을 원하는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회원들의 분위기는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이슈가 문제화 돼있는 시점에서 회원교회가 아닌 우리 교단이 참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설명했다.

-강대은 목사가 교단 총회장으로 세워진 뒤에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 바로 은혜의빛장로교회다. 이 교회는 올해로 21살 생년

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는 공동체 속에서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빼거나 더해서도 안 되며 모든 문화적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 이런 믿음의 본질을 바탕으로 할 때 지금 난무하고 있는 동성애와 같은 문제는 맹목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쁜 일정,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인터뷰에 응해준 강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성자 기자)

심포지엄 6월 18일(월) 1일 세미나 (등록금 \$10)

제1부 사회 : 허귀암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수석총무) am 10:00 - 10:30 개회예배
기도 : 원성택 교수(서던 캘리포니아 신학교)
찬양 : 지명택 목사(소리엘)
말씀 : 김영대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
축사1: 송정명 목사(미기총 회장, 미주 평안교회)
축사2: 변영익 목사(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축사3: 엄영민 목사(오렌지 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축사4: 신중은 목사(오렌지 카운티 한인목사회 회장)
축사5: 박신욱 목사(미주목회방송 사장)
제2부 사회 : 오상철 박사(이민신학연구소 소장, D.Miss.) am 10:30 - 10:50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 보고(서태욱 전도사, 이민신학연구소)
주제강연 : 개척세대와 함께하는 차세대 목회 am 10:50 - 11:10 박희민 목사 : 개척세대 목회자가 현 세대 및 차세대 목회자에게 am 11:10 - 11:30 박영배 목사 : 차세대 목회자가 개척세대 및 현세대 목회자에게 am 11:30 - 12:30 트랙 1 : 개척세대 / 현세대
진행 : 이철 목사(가나안교회)
Presenter 1 :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개척세대
Presenter 2 : 오상철 박사(이민신학연구소 소장, D.Miss.)-현세대
Presenter 3 : 김영대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개척세대
Presenter 4 : 이상명 박사(미주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 Ph.D.)-현세대
Presenter 5 : 이석부 목사(세리프스 암페시아 연합장로교회)-현세대
Presenter 6 : 김영주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전임강사, Ed.D.)
pm 12:30 - 1:30 점심식사(나성영락교회 식당)
pm 1:30 - 1:50 특별선서(축사_이인미 전도사, 독창_지정 목사(은혜교회), 중창_여성중창단(포에머)
pm 1:50 - 3:10 트랙 2 : 현세대 / 차세대
Presenter 1 : 박영배 목사(뉴라이프 신교회 담임)-차세대
Presenter 2 : 천세중 박사(나성영락교회, 부목사 Ph.D.)-현세대
Presenter 3 : 마이클 박사(나성영락교회 EM 디렉터)-차세대
Presenter 4 : 방상용 목사(인랜드교회 부목사)-현세대
Presenter 5 : 유니스홍 박사(주님의 영광교회 교육부 Ph.D.)-차세대
Presenter 6 : 강우중 전도사(캘리포니아 Ph.D.과정/사회유리)-차세대
pm 3:10 - 3:30 종합토의와 결론(박희민, 김영대, 오상철, 이철, 박영배 목사)
pm 3:30 폐회 Closing
광고 : 허귀암 총무, 오상철 목사(이민신학 연구소)

▷ 심포지엄 등록처 : 허귀암 목사 남가주 한인목사회 수석총무 TEL 714-308-7308, usa8291@gmail.com
최민기 연구원 이민신학연구소 TEL 714-905-3538, multiculturalpastor@gmail.com

제4회 이민신학심포지엄 2012 4th Symposium of Immigration Theology

개척세대와 함께하는 차세대목회

2011-2012년 내셔널 서베이 전략테이블 2011-2012 National Korean-American Church Survey Strategy Table

북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제시한다!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백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내셔널 서베이 전략테이블 안내(초청자 only)

- 6월 25 ~ 27일, Ramada Plaza Hotel, CA
- ▷ 공동 주최 :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 박사) 내셔널 서베이위원회의(위원장: 박희민 박사)
- 1세파트-위원장: 정인수(아를란타 연합장로교회, CA) 이재훈(서울 은누리교회) 박성민(아주사 퍼시픽대학교 Special Advisor to President, CA) 민종기(LA 증현신교회, CA) 진유철(나성 순복음교회, CA) 오규훈(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 Korea) 박수광(국제 코스타 전일총무, Korea)
- 2세파트-위원장: 민철(크리스찬 필로소피, Chicago) 박영배(뉴라이프미션교회, CA) 노승환(토론토 민안교회, Toronto, CANADA) 정대성(플로리다 뉴라이프 신교회, CO)
- 평신도-위원장: 박상원(미주 한인계단 전국총회장) 최남수(안희 침례교회 장로) 서순석(나침반 교회 집사, OC 기독교 전도회 연합회 총무) 민철헌(미주한인계단 LA지부 회장, CA) 강경숙(미주 한인계단 LA지부 사무총장, CA) 이일(나성순복음교회 회장, CA)
- 다민족-위원장: 오성기(일만안다교육 교회, PA) 이은우(Kimnet 사무총장, GA) 조용중(글로벌 오프, Korea) 정유명(북가주 글로벌 다민족 국제선교대회 회장, CA) 권병철(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
- 축사 1 : 변영익 목사(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 축사 2 : 이상명 박사(미주 장로회신학대학 총장)
- 축사 3 : 김영대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